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형상화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 전공

이 정 혜

2024년 2월

#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형상화 연구

지도교수 김 상 한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 전공

이 정 혜

2024년 2월

이정혜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이경화 인

심사위원 박혜림 인

심사위원 김상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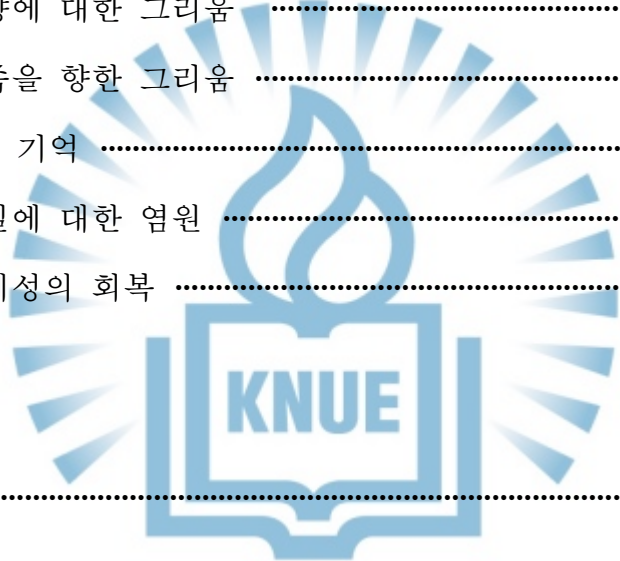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4년 2월

< 차 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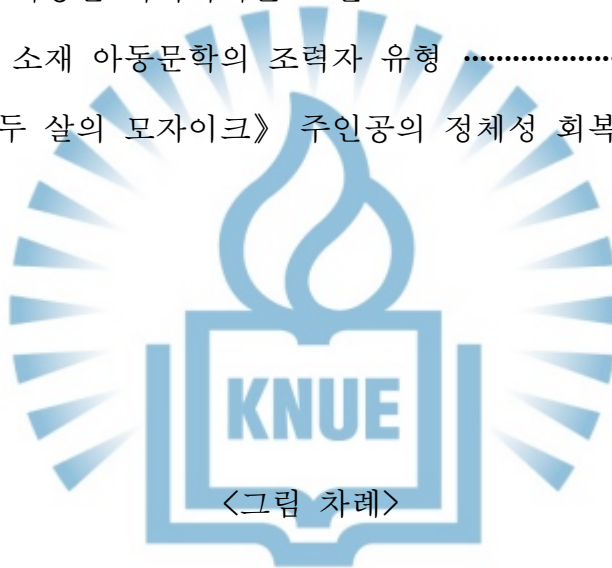
논문 요약 .....	iv
<b>I. 서론 .....</b>	<b>1</b>
1. 연구의 필요성 .....	1
2. 선행 연구 검토 .....	4
가. 기억의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	4
나. 탈북문학 관련 연구 .....	7
3. 연구 대상 및 연구 내용 .....	13
가. 연구 대상 .....	13
나. 연구 내용 .....	20
<b>II.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과 기억 .....</b>	<b>23</b>
1.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와 특성 .....	24
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 .....	24
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 .....	28
2.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 .....	41
가. 문화적 기억과 문학 .....	42
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 .....	49

Ⅲ.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 .....	55
1. 고통의 기억 .....	55
가. 북한, 고국에서의 아픔 .....	56
나. 이주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 .....	60
다. 경계인의 사회적 타자화 .....	63
2. 그리움의 기억 .....	75
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	75
나. 가족을 향한 그리움 .....	79
3. 희망의 기억 .....	84
가. 통일에 대한 염원 .....	85
나. 정체성의 회복 .....	95
Ⅴ. 결론 .....	105
참고 문헌 .....	110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 작품 목록 .....14  
<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27  
<표 3> 분단문학에 대한 개념 정의 .....35  
<표 4>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는 요인 .....65  
<표 5>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조력자 유형 .....91  
<표 6> 《열두 살의 모자이크》 주인공의 정체성 회복 과정 .....95



[그림 1] 루다 엄마와 대성 아빠의 결혼식에 준비된 북한 음식 ·87

## 논문 요약

#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형상화 연구

이 정 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초등국어교육 전공  
(지도교수 김 상 한)

본 연구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을 살피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탈북 아동의 기억과 탈북 아동의 주변인으로서 탈북 아동을 바라보는 이들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이러한 기억은 그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 중에서 총 9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에 형상화된 탈북 아동의 기억과 주변 인물의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탈북을 경험한 아동’을 주요 인물로 하는 작품으로 한정하였으나, 본고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인 제3국 출생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이라고 해도 작품에 탈북민의 서사가 담겨 있으며 이러한 탈북 배경을 지닌 아동의 삶이 탈북민의 삶



과 유사한 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 분단문학에 속한다. 중심인물인 탈북 아동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디아스포라이며,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이자, 분단 사회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자신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인 탈북 아동의 삶을 공명하여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게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분단의 증인이자 디아스포라를 경험한 탈북 아동이 다문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 표현 방법으로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특성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지닌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은 북한에서의 아픔, 탈북 후 이주 과정에서의 아픔, 그리고 정착한 곳에서 사회적 타자화로 겪는 아픔이다. 그리움의 기억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움의 기억은 공간, 사물 등 탈북 아동이 정착한 사회에서 접하는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 소환된다. 희망의 기억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바라는 통일에 대한 희망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희망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통해 독자는 고향을 떠나 낯선 사회를 살아가는 존재인 탈북 아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통해 독자는 통일에 대한 희망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작품 안에 이들을 타자화하는 인물들과 돕는 인물들을 배치함으로써 탈북 아동에 대한 독자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기억을 전이하는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정, 탈북 아동에 대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성찰,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를 담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지속적인 생산은 탈북 아동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호소하는 탈북 아동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삶은 진정한 통일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기억에 관한 본고의 연구가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 아동을 향한 관심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진정한 공존을 이루는 사회를 향한 움직임의 흔적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탈북 소재 아동문학, 탈북 동화, 탈북동화, 문화적 기억, 문화적 기억, 기억의 형상화, 사회적 타자화, 정체성 회복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작중 탈북 아동이 경험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그것은 탈북 아동 혼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탈북 아동을 둘러싼 주변 인물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찰함으로써 함께 공유하는 기억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 시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본격적인 탈북이 시작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탈북을 소재로 삼은 아동문학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창작되면서 탈북민의 삶은 아동문학 작품에서 주요한 소재로 차용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들은 탈북 아동을 비롯한 탈북민의 삶을 형상화하면서 하나의 작품군을 형성하는 중이다. 본고에서는 탈북을 경험한 아동 혹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 출신인 제3국 출생 아동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동화를 탈북 소재 아동문학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아동문학 작가들이 탈북에 지속적으로 문학적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탈북 현상은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입국 탈북민은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통일부, 2023), 정부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한 부분에는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탈북민을 자신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며 배척하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일부는 탈북민을 향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타자화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는 무지와 무관심으로 타자화의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다시 탈남하여 제3국으로 가는 탈북민까지 존재하고 있다<sup>1)</sup>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진 탈북민을 향한 타자화의 시선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탈북민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통일을 바라는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서의 탈북민을 향한 관심도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탈북민을 향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탈북민을 향한 타자화의 시선을 거두고 탈북민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나 많은 대한민국 구성원에게는 타자로 존재하는 이들이 탈북민이라는 점에서, 이들을 향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은 탈북민을 타자화하는 태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진정한 ‘우리’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

1) 조다운(2022.1.9.)은 탈남 탈북민이 700이 넘었다는 뉴스 기사를 썼고, 통일부(2022.1.9.)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탈남 탈북민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숫자에 대한 반박이다. KBS의 ‘분단의 방랑자들(2017.9.5., 김명주)’은 탈남 탈북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에 대한 앎이 필요하다. 사회의 구성원이 탈북민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편견 없이 받아들일 때 탈북민은 비로소 안정적으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을 살피는 일은 필요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작품 속 탈북 아동의 기억에 대한 탐색은 탈북 아동의 삶에 깊게 공명하는 문학적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실제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탈북 아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둘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은 그 의미와 함께 형상화되어 서로 다른 공간, 다른 시간의 독자들을 연결시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되는 기억과 달리 텍스트에 담긴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기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가진 탈북민을 타자화하는 시선에 대한 인지는 탈북 아동에 대해 관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탈북민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이질감이나 편견 없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에 대해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편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 문학에 드러난 기억을 살피기 위해 먼저 문학을 기억의 관점으로 고찰한 연구들을 살폈다. 생물학 분야에서 논의되어 오던 기억은 1900년대 이후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층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맥락과 관련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를 위해 먼저 기억 관점의 문학 연구를 검토하였다.

한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본고의 연구를 위해 탈북 문학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성인 대상 탈북문학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언급하고,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를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의 선행 연구 고찰의 첫 번째 범주는 기억 관점의 문학 연구이며, 두 번째 범주는 탈북문학 관련 연구임을 밝힌다.

### 가. 기억의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문학 텍스트를 기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한 연구들은 기억과 문학적 상상력이 서로 교차하는 문학 텍스트가 바로 기억 공간이 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기억 공간으로서 문학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기억을 사회적 또는 집단적 현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들과 연관된다.

기억의 관점으로 문학 텍스트를 바라본 연구로 유예원(2009), 안점옥(2017), 임경순(2017), 김태호(2021), 강연목(2022) 등이 있다. 안점옥(2017)

은 문학 텍스트를 기억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기억 서술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분석하였는데, 현재적 재현의 방식이 ‘기억의 간접화’인 회고담보다는 생생한 현장성이 살아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현재적 재현 방식으로 서술하는 5·18 소재 장편 동화 세 작품을 선정하여 작가가 5·18에 대해 어떠한 기억을 어떤 방법으로 형상화하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김태호(2021)는 기억 공간으로서의 텍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문학을 ‘기억으로의 문화학’과 연결시켰다. 그는 세월호 사건을 애도한 시 작품들이 세월호 기억을 형상화하며 세월호가 남긴 고통을 발화하고 있고,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고 당사자의 정신적 외상 및 국민들의 사회적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며, 국가의 역할 혹은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같은 우리 시대의 윤리를 되묻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유예원(2009), 강연목(2022)은 문학작품을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인지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에서 문학작품이 사건을 기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됨을 강조하였다. 유예원(2009)은 전쟁이 충격적인 체험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억에 비해 오래, 반복적으로 회고하게 되기 때문에 전쟁 소설 분석의 관점으로 기억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구자는 전쟁을 과거의 기억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되는 순간인 현재와의 의식적인 상호침투 과정을 거쳐 새롭게 인식된 현재적인 사건(유예원, 2009: 16)”으로 인식하면서 기억정치와 그에 저항하는 대항기억의 형성 과정까지 다루었다. 연구자는 국내 전쟁소설과 베트남 전쟁소설 등 다양한 전쟁 관련 문학작품을 통해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현실 인식이 이루어지고 저항이 모색되며 마침내 제 3세계적 근대성에 대한 성찰을 얻게 됨을 확인하였다.

강연목(2022)은 문학이 “문화적 기억을 담지한 표상의 한 형태”라고

보았다. 그는 한국전쟁을 다룬 역사 동화에서 피난민, 피난을 가지 않은 양민, 인민군과 탈북민의 세 주체에 집중하여, 한국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세대에서 공유되는 문화적 기억을 애도, 이산, 소외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문학이 세대를 뛰어넘는 기억의 공유를 이루는 매개체라는 점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 동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전쟁에 관한 집단의 기억에 정치적 권력의 영향이 있었기에 이를 문화적 기억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위 선행 연구들은 과거의 사건 관련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시간이 흐른 후 그 사건을 체험 혹은 기억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간의 소통 문제를 중요시하거나 현재적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의 재해석하는 것을 중요성 등을 다룬다. 이들은 문학 텍스트를 기억 공간으로 인식하며, 작가가 선택하여 문학 텍스트로 형상화한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이는 문학 텍스트가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 세대를 지나도 고정된 의미를 전수함과 동시에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되는 재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과거 사건을 대상으로 한 문학 텍스트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 탈북을 소재로 하는 문학 텍스트에 관한 연구이다. 탈북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며, 탈북민은 현재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민의 기억이 담겨 있다. 탈북민의 기억과 탈북민의 기억이 형성하는 의미에 대한 연구는 작중 탈북민의 지나간 삶에 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 아동을 향한 관심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나. 탈북문학 관련 연구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탈북문학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탈북민을 제3세계 난민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진 탈북문학에 대한 연구(오윤호, 2011; 오태영, 2022), 탈북자 문제를 우리 사회의 소수자 문제와 연결하여 보고자 한 연구(김인경, 2014), 남한의 작가에 의한 탈북문학은 그 주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탈북민 작가에 의한 문학작품에 집중한 연구(서세립, 2017; 고인환·이정선, 2018; 이혜연, 2018), 통일 교육의 제재로서 탈북문학을 바라본 연구(권근영, 2020), 문학 속의 공간을 가상의 공간이 아닌 실존하는 공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의 문학 공간을 분석한 연구(남궁 정, 2022), 미국에서 발행된 탈북문학을 통해 디아스포라로서의 탈북 문제를 조명한 연구(김대중, 2020; 노종진, 2021) 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모두 탈북문학이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서로 존중하며 조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관점을 가진다.

이 외에 다수의 작품 혹은 다수의 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문학을 폭넓게 살핀 연구들도 있다. 김세령(2013)은 탈북민 소재 한국 소설을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형도를 제시하고 그 소설사적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박덕규(2015)는 분단문학의 시기별 내용을 제시하는 등 탈북문학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2000년 이후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삶이나 탈북 과정의 비참함을 알리는 고발 문학의 성격이 강했지만, 점차 탈북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하는 시선을 가진 문학작품이 많아지고 있다.<sup>2)</sup>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의 활발한 창작과 더불어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박덕규·안수연(2017)은 탈북 동화의 주된 내용에 따라 탈북 과정 자체를 주요 소재로 삼는 동화와 탈북에 성공한 이후 중국 또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주요 소재로 삼는 동화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초기의 탈북 동화는 탈북 아동의 비참했던 실상을 알려주는 증언의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이후 탈북 동화를 통해 남과 북이 소통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특히 탈북 아동을 ‘이중 약자’로 진단하며, 탈북 동화가 현실의 탈북 아동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탈북 동화에 드러난 탈북 아동의 고통과 갈등을 살핌으로써 문제를 근원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방은수(2021)는 학습자들이 통일 주체로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 이질적인 타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북한 주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기 위해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사회에 차별받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차별을 멈추게 하는 것이 소통이며,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이 이 소통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탈북 아동이 정체성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남한 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계적 의미망에 대한 인식 변화,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

---

2) 안수연(2017: 231)과 이정연(2018: 25)은 다수의 작품들이 탈북 이후 정착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서로의 이질성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성장하는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였다. 박덕규·안수연(2017)과 방은수(2021)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북한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김미애(2014)는 탈북 동화에서 보이는 탈북 아동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탈북 아동이 경험한 기아, 무국적자 신분 등이 캐릭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은 남한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탈북 아동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탈북 아동들이 좌절하지 않고 상처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면서 점차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다가서려는 당찬 의지와 함께 동질감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탈북 동화의 의의를 찾았다.

황선옥(2015)은 2000년대 이후 2015년 2월까지 발표된 동화 및 청소년 소설 중에서 남한에서의 생활상이 나타난 작품 20편을 대상으로 작중 인물이 겪는 갈등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이 극복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 사회 내에서 성장기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의 갈등을 파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일 미래를 위한 문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명옥(2018)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작품을 통해 탈북민을 향한 우리 사회의 태도에 관한 성찰을 다루었다. 연구자는 난민의 관점으로 탈북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떠돌이별》, 《봉주르 뚜르》, 《난민소녀 리도희》에 나타난 탈북민의 삶에 대해, 자신들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자는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의 시작이고, 타자화의 시선을 거두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연(2018)은 탈북 소재 동화의 서사 특징과 갈등을 분석하고 탈북 소재 동화가 갖는 한계와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탈북 동기와 탈북 과정에 초점을 둔 작품의 특성과 탈북 이후 정착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작품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탈북 소재 동화의 문학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 아동의 월경의 기억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렬한 기억임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탈북 소재 동화의 한 특징으로 언급한 것일 뿐,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탈북 아동의 기억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이 연구는 2000년 이후 창작된 탈북 동화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구별된다.

임정택 외(2021)는 그동안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 연구를 총망라하여 탈북 동화 4권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 동화 작품 분석을 통해 향후의 다문화 문학이 단순히 사회적 현상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 간의 협력과 상호존중을 통해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경험을 독자에게 선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기억 관점에서 문학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 및 탈북문학 관련 연구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기억의 관점으로 보고자 한 연구를 찾기 어려웠다. 이정연(2018)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탈북 아동의 월경의 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의 해체, 극도의 공포감이 탈북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탈북 아동의 북한에서의 삶과 월경의 과정이 탈북 아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렬한 기억이라고 언급하였지만 기억에 관해 깊이 있는 연구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탈북 아동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증인으로서 우리와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탈북 아동을 주요 인물로 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기억의 관점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현실 공간을 투영하고 있다는 관점의 연구는 다수 있었다. 이 연구들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현실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적인 표현 방법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매우 중요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전면적으로 취하는 사실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인 표현 방법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큰 특성 중 하나라고 보고, 본고의 논의에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인 표현 방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진정한 통합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가능한 바, 탈북 소재 아동문학 속 탈북 아동이 무엇을, 왜 기억하고 있으며, 작품에서 그것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탈북 아동의 고통의 삶에 대해 탈북 아동에 대한 편견 고착화 혹은 재생산의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담은 연구들은 많은 반면,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탈북 아동의 고통의 삶을 그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담긴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박덕규(2017)는 현실의 탈북 아동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탈북 동화 속에서 탈북 아동의 고통을 살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진단해 볼 수 있다고 함으로써 탈북 동화가 형상화하는 탈북 아동이 경험한 고통의 삶의 긍정적인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문제의 근원을 탈북 아동에서 찾고자 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드러내는 탈북 아동의 갈등과 부적응 모습의 원인에 대한 탐색보다는, 그러한 것을 드러냄으로써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독자에게 전하는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나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탈북 아동의 기억을 살피는 일은 탈북 아동을 존중하는 태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의 관계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으며, 진정한 통합을 향한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3. 연구 대상 및 연구 내용

#### 가. 연구 대상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기억이 어떠한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대체로 현실 공간과 유사한 문학 공간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북 아동이 경험하는 소통 단절의 지점과 갈등의 양상 및 해결책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본격적으로 탈북 소재 문학작품의 창작이 붓물을 이룬 2000년대 이후의 작품을 대상으로 9편을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첫째, 아동문학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이고, 둘째, 탈북을 경험한 아동 혹은 탈북민 부모를 둔 제3국 출생 아동이 작품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탈북민 부모의 제3국 출생 아동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지만, 기존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러한 아동이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의 부모 한쪽 이상이 탈북민이기에 이들은 탈북 배경을 가진 아동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이들의 서사가 다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본고가 선정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들은 내용 면에서 디아스포라 문학이면서 다문화 문학에 속한다. 그리고 탈북민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인 전쟁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점에서 분단문학에 포함된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을 살피기 위해 다음과 같이 9편을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작품 목록

순	제목	저자	발행 년도	출판사
1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허순영	2017	노란돼지
2	《개성빵》	문영숙	2013	아이앤북
3	《개구리 울음 소리》	이청해	2016	물망초
4	《리루다네 통일 밥상》	박경희	2021	한솔수북
5	《북녘 친구 남녘 동무》	원유순	2013	국민출판사
6	《열두 살의 모자이크》	황선미	2021	창비
7	《난민 소녀 리도희》	박경희	2017	뜨인돌
8	〈자그사니〉	박경희	2013	뜨인돌
9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박경희	2022	주니어김영사

3)

위의 작품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중학년 대상 작품과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작품을 고르게 선정하고자 했다. 둘째, 탈북 아동의 기억이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을 선정하되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 과정의 아픔에 집중되는 탈북 과정 동화보다는 정착한 나라에서의 갈등을 주로 다루는 탈북 정착 동화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초등 저학년 대상 작품은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탈북이라는 소재의 특성상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수의 그림책이 있었지만,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억의 관점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본고의 대상 작품에 박경희 작가의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박경희 작가가 지금까지

3) 〈자그사니〉는 《류명성 통일 빵집》에 수록된 단편 작품이다. 본고는 《류명성 통일 빵집》에 수록된 단편 6편 중 1편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위 작품 외에 《류명성 통일 빵집》에는 〈류명성 통일 빵집〉, 〈오뎅이 열쇠 고리〉, 〈아바이순대〉, 〈빨래〉, 〈책 도둑〉이 실려 있다.



발표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이 단편 포함 16편에 달하며, 최근까지 활발하게 작품을 창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 아동의 기억이 선명하게 드러난 작품들 중에는 아픔과 고통의 장면이 강하게 표현된 것도 있다. 본고는 대상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 이러한 작품을 제외시키지 않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그리는 고통이 아동문학의 동심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이 아름답고 희망찬 서사만을 그려야 하고, 탈북이라는 소재는 그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아동문학에 설 자리가 없다. 그러한 관점에 의하면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끊임없이 희망을 그리고 있다. ‘희망’이라는 범위에 고통을 제외한 희망만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아픔과 고통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수록된 작품 역시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위 작품을 대상으로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에서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 작품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 아래의 자료가 언급되는 경우 저자,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책 제목만 작성하고자 한다.

#### 1)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허순영(2017), 노란돼지.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은 엄마와 함께 탈북한 초등학교 5학년 민철이의 이야기다. 이 동화는 동화다운 매력으로 민철의 아픔을 아픔처럼 그리지 않는다. 문화적 괴리감으로 인해 민철은 늘 좌충우돌하지만, 민철이 가진 특유의 씩씩함과 유쾌함은 동화의 분위기를 시종일관 밝게 만든다.

전학 온 첫날부터 민철이는 엄마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 일을 만난다.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민철이 식판에 콩나물을 덜어 놓은 일로 인해 소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남한에 와서 처음 비밀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일은 앞으로 생길 많은 비밀의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은 탈북 아동 민철이의 10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민철이의 친구인 형주와 지혜, 엄마를 좋아하는 세호 아저씨가 민철이의 서사를 만들어 가는 중심 인물들이다. 형주는 민철이를 많이 괴롭혔던 친구인데, 민철이 형주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런 형주와의 추억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간다. 지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으면서도 민철이를 도와주는데, 이는 자신 역시 탈북 아동이기에 민철이를 잘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은 탈북 아동 민철이의 시선으로 자신의 경험과 마음을 서술하면서 민철이가 가진 아픔과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기억을 담고 있다.

## 2) 《북녘 친구 남녘 동무》, 원유순(2013). 국민출판사.

《북녘 친구 남녘 동무》는 대한민국이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작품으로, 같은 학교 학생 여섯 명에 관한 이야기가 각 두 편씩 수록되어 있다. 광철이를 시작으로 하는 각 이야기들은 각각 독립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각 에피소드는 같은 학교의 학생, 통일 후 겪을 수 있는 여러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작품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통일’을 그리고 있는 모자이크 형식의 작품이다.

여섯 명의 열두 가지 이야기에는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들이 다양하게 드러난다. 통일을 가정한 작품인 만큼 희망의 기억이 강하게 나타난 듯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픔의 기억이 작품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삶에 대한 아픔, 북한 사람들에 대한 남한의 차별로 인한 아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원망이 되어 버린 아픔, 그리고 통일 후 이어지는 차별로 인한 아픔 등 수많은 아픔의 기억이 새겨져 있다.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촘촘히 반영한 서사로, 이 작품에 그려진 기억들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과 다르지 않다. 비록 가상의 이야기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가상으로 옮겨 놓은 리얼리즘의 확장인 것이다.

### 3) 《열두 살의 모자이크》, 황선미(2021), 창비.

《열두 살의 모자이크》의 주인공인 열두 살 제나는 탈북민 엄마와 중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금은 엄마, 그리고 엄마의 재혼으로 태어난 동생 미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나는 두 번이나 엄마에게서 버려진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제나를 중국에 두고 대한민국으로 도망쳤을 때이고 두 번째는 엄마가 탈북민 출신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새아빠의 엄마가 제나를 싫어해서 제나를 성당시설에 두었을 때이다. 어느 날 제나는 자신을 도둑으로 모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학교를 나와버렸다. 다음 날 ‘누더기’라는 소리까지 듣게 된 제나는 당당하게 지내던 그동안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눈치를 본다. 제나는 아이들과의 관계와 엄마와의 관계에서 힘들어하지만 반 친구 경민이, 그리고 우연히 만나게 된 콩 여사와 콩 할아버지, 제나 가족을 담당하는 김 형사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시 당당함을 회복한다. 《열두 살의 모자이크》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가는 제나의 이야기로 제나의 마음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4) 《개성빵》, 문영숙(2013), 아이엔북.**

《개성빵》의 주인공 기태는 먼저 탈북한 엄마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서 동생 기욱이와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기태가 탈북하기 직전, 아빠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걸려서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었고, 아빠를 면회했을 때 아빠는 할머니에게 기태, 기욱이를 꼭 따라가시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자식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북한에 남았다. 지금은 엄마가 다시 브로커를 통해 아빠와 할머니의 탈북을 돕고 있고, 기태의 가족은 아빠와 할머니가 무사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와 아빠를 향한 초조한 기다림과 기태의 학교 생활 이야기, 그리고 북한에서 살았던 삶을 회상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5) 《개구리 울음소리》, 이청해(2016). 물망초.**

《개구리 울음소리》의 주인공 선일이는 3학년 3반에 전학온 학생이다. 선일은 아이들이 생소하게 느끼게 되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선일은 어디 사투리인지도 알 수 없는 말투를 사용하고, 국어(가) 교과서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 덩치는 작는데 밥과 반찬 수북이 세 번을 퍼다 먹는다. 교실에서 실내화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다. 추위도 자꾸 창문을 열고 명청하게 창문만 바라본다. 너무나 이상한 선일이를 향해 아이들은 놀림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선일이의 아픔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은 선일이를 이해하게 된다.

6) 《리루다네 통일 밥상》, 박경희(2021). 한솔수북.

《리루다네 통일 밥상》의 작품의 주인공 루다는 북한에 살 때 국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 아빠는 북한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당원이었지만 러시아로 출장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다.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국회의 가족은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 국회의 엄마는 평양 옥류관에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탈북하였고 중국집 세프로 일하던 대성의 아빠와 재혼을 하였다. 그리고 루다의 가족은 대성이 어린 시절부터 자란 환상촌이라는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환상촌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가족같이 서로를 챙겨주는 다정한 사람들이다. 이 작품은 새롭게 가족으로 만나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루다엄마와 할머니를 통해 다양한 평양 요리를 소개하고 있다.

7) 《난민 소녀 리도희》, 박경희(2017), 뜨인돌.

《난민 소녀 리도희》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는 3명의 초점화자와 주인공 도희의 시선이 교차하며 진행된다. 이 작품 프롤로그의 배경은 중국 공항이다. 도희의 난민 신청을 위해 엄마는 도희만 캐나다로 보낸다. 혼자 캐나다에 도착한 도희는 난민 신청을 하고, 엄마를 찾기 위해 대한민국에 오게 된다. 도희는 엄마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다큐멘터리 방송팀을 따라오지만, 방송만을 우선시하는 방송팀의 모습에 회의감을 느끼고 팀을 몰래 나와 혼자서 엄마를 찾아다닌다.

8) 〈자그사니〉, 《류명성 통일 빵집》, 박경희(2013), 뜨인돌.

〈자그사니〉는 《류명성 통일 빵집》에 실린 6개의 단편 중 하나로 수족관에서 일하는 탈북인 소녀 강희의 이야기다. 강희는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애심을 만나 험난한 탈북 과정을 함께 했다. 어느 날 애심의 부탁으로 강희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애심은 강희의 돈을 갚지 않고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강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 9)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박경희(2022), 주니어김영사.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은 통일 대한민국을 가상한 문학작품이다. 주인공 정혁과 정혁의 친구 미소, 정혁의 누나는 통일 열차를 타고 북한을 여행한다. 이들은 북한을 여행하며 엄마 없이 혼자 탈북했다가 통일 후 북에 있는 엄마를 찾아 다시 온 향기, 그리고 북한의 영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향기의 사촌오빠 리철과 함께 백두산 등반을 한다. 여행하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각자가 가진 상처는 통일 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보여주면서, 독자로 하여금 진정한 화합과 공존의 장으로서의 남북통일을 그리게 한다.

#### 나. 연구 내용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다. 기억은 망각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기억이란 망각에 대한 기억,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망각했음을 잊지 않을 가능성(전진성, 2005: 70)” 이라는 말은 기억의 불완전성을 잘 설명해 준다.

이렇게 불완전한 기억은 개인의 문제일 뿐아니라 사회적 기억이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의 기억은 신경학적 기반을 갖지만, 공동체의 기억이라 할 수 있는 사회의 기억은 문화적 기반을 갖는다. 따라서 사회

의 기억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진 문화적 매체의 고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의미를 형성하는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적 매체라고 본다. 작가에 의해 선택된 기억은 작중 인물들의 기억으로 형상화된다. 그것은 작중 탈북 아동과 탈북 아동의 주변에서 탈북 아동을 만나거나 관찰하는 인물들의 기억을 포함한다. 즉,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작중 탈북 아동과 탈북민 공동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구성원의 기억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억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탈북 소재 문학작품에 형상화된 기억이 어떠한지 살피는 일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며 이해하기 위한 준비의 의미를 지닌다. 어린이 독자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그려진 기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이웃으로 만날 수 있는 탈북 아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이 탈북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경험이다. 연구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1절에서는 본고 논의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먼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를 확정한다. 본고의 대상 작품 중 하나인 《열두 살의 모자이크》(황선미, 2021)의 주인공은 탈북민 엄마와 중국인 아빠의 자녀이다. 이 작품은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탈북민과 중국인 사이 출생 아동을 부각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양한 탈북 배경을 가진 아동이 있음을 알렸다. 본고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바라보고자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대한 재개념화를 바탕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탈북

아동이 어떠한 존재인지 살핍으로써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가진 사실적 표현 방법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전개할 것이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에 대해 알아본다. 2절의 기억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기억’에 기초한다. 문학 텍스트는 문화적 기억의 강력한 매개체 중 하나이다. 문화적 기억의 의미과 특징을 살핍으로써 문학 텍스트가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매개체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는 논의가 된다. 다음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그 의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마련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본고에서 선정한 분석 대상 작품 9편이 어떠한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기억의 형상화는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중심 사건에 따라 양상을 분류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해당 작품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탈북 소재 문학작품에서의 기억의 형상화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II.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

이 장에서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 형상화 과정과 의미를 살피기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1절에서는 본고에서 의미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와 특성을 살핀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그동안 부각되지 못했던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은 작품의 주요 인물인 탈북 아동에 대한 탐색으로 이루어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난 탈북 아동에 관한 디아스포라 문학이면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아동에 대한 다문화 문학이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주요 인물이 6·25전쟁으로 인한 분단 현실의 실재적 증인이라는 점에서 분단문학에 속한다. 이러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매우 사실적인 표현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 시대라는 가상의 배경을 가진 작품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인 표현 방식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중요한 특성이다.

다음으로 2절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에 대한 논의이다. 여기서는 먼저 문화적 기억의 의미와 특성을 살핀다. 문화적 기억은 기억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문학 텍스트는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강력한 매체인데, Erll & Nünning(2008)의 논의는 문화적 기억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이 이어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들과 그 의미를 알아봄으로써 3장 작품 분석의 기초를 마련한다.

## 1.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와 특성

여기서는 본고에서 논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직까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장르적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본고 논의의 대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밝히는 것은 더욱 필요한 일이다. 본고는 탈북을 경험한 아동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제3국 출생 탈북민 부모의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탈북 소재 아동문학으로 본다. 탈북 배경을 지닌 아동에 관한 서사를 포함하는 본고의 개념은 지금까지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 연구들에서 개념화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개념을 확장한다. 그리고 확장된 개념을 바탕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 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

아동문학에서 탈북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규정하는 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다. 또한 아동문학, 아동 소설, 청소년 문학, 청소년 소설 등의 장르적 명칭에 대해서도 학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장르적 명칭에 대한 합의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대해 명확한 개념화를 할 수는 없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논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작중 인물의 배경과 관련하여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대한 명칭은 “탈북 관련 동화(신세니, 2008)”, “탈북을 소재로 한 동화, 탈북 동화(안수연, 2017)”, “탈북 소재 문학작품, 탈북동화(박덕규·안수연, 2017)”, “탈북 소재 아동문학, 탈북 소재 아동소설(방은수, 2021)” 등 다양했다. 이정연(2018)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그는 탈북 소재 동화에 대해 “아동문학 작품들 중 탈북을 중심 소재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탈북이란 “북한에서 이탈하는 행위’를 뜻하며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 탈북을 실행하는 과정, 탈북 이후 유랑 및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포함한다(이정연, 2018: 12).”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참고하면 그 명칭은 다르지만,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일반적으로 탈북 아동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탈북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군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의미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그동안 이루어진 여러 연구에서 개념화한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범주에 탈북이라는 특수한 국제 현상을 경험한 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인 제3국 출생 아동’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인 제3국 출생 아동은 양계민(2020)이 유형화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한 범주이다. 양계민(2020)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국제결혼가정 아동·청소년과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으로 나누어 <표 2>와 같이 유형화하고 있다.

<표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양계민 외, 2020: 22)

본인 출생지 부모 배경	국내 출생	국외 출생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①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②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부모 모두 외국인	③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④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본인 출생지 부모 배경	남한출생	남한 외 지역 출생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	⑤남한출생 탈북배경청소년	⑥북한출생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결혼가정		⑦제3국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은 <표 2>의 ⑤, ⑥, ⑦에 해당한다.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은 ‘남한 출생’ 과 ‘남한 외 지역 출생’ 으로 나뉜다. ‘남한 외 출생’ 은 북한과 제3국 출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북한 출생 아동·청소년은 북한 이탈을 직접 경험한 ‘탈북 아동·청소년’ 이며, 제3국 출생 탈북 배경 아동·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인 경우이다.

‘⑦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 범주에는 중국 출생 탈북민 여성의 자녀가 다수 포함된다. 여기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서 해당국 주민과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한 후 거주하다가 중간에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탈북민 부모가 아닌 외국인 부모는 대부분 중국인인 경우가 많고, 탈북 배경 아동도 중국에서 온 경우가 많아 중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기도 한다(양계민, 2020: 23). 이들은 탈북민 여성이 중국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인신매매 등의 대상이 되어 팔려 간 곳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이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민이 되지 못한다.

아동의 엄마가 불법적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열두 살의 모자이크》(황선미, 2021)의 주인공 제나가 이러한 인물이다. 작품에서는 제나를 중도입국자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중도입국자란 원래 “국의 출생 국제결혼 가정 자녀(양계민, 2021: 14)”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최근의 연구는 제나와 같이 부모 중 한쪽이 탈북민인 경우도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구분하여 중도입국자로 분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 대부분은 ‘⑥북한 출생 탈북 아동’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작품을 탈북 소재 아동문학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⑤남한 출생 탈북 배경 아동’과 ‘⑦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들은 북한의 국경을 넘는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불법적인 국경넘기의 경험을 한 경우가 많으며, 탈북민 부모가 겪은 삶을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면서 탈북민과 유사한 정서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탈북 아동도, 외국인도 아닌 자로서 탈북 아동보다 더욱 다층적인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이러한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다층적인 정서와 정체성으로 인해 이들이 디아스포라 2세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개념화하고자 한다. 즉, 본고는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탈북을 경험한 아동이 등장하는 동화 혹은 탈북을 소재로 하는 동화라고 개념화한 틀을 깨고, ‘탈북 배경을 가진 아동이 주요 인물로 드러나는 서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의미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문학의 일반적인 개념에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이고, 둘째, 탈북 배경을 가진 아동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이다. 탈북 배경의 아동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부모의 자녀’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 사용하는 탈북 아동이라는 용어는 탈북 배경 아동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 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탈북 아동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 온 디아스포라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하여 정착한 곳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에 속한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분단 문학에 속한다. 탈북 아동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 현실의 증인으로서 이들은 통일이라는 미래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인 표현 방식과 함께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 분단문학으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탈주하는 존재에 대한 서사인 디아스포라 문학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흔히 ‘이주’와 비교하여 설명된다. 이주란 원래 살던 곳을 떠나 타지역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탈북민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온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주민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로 거주국을 옮겨 시민권을 획득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이민자’ 나 ‘이주민’ 은 탈북민의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 오히려 ‘디아스포라’ 가 훨씬 더 탈북 아동의 특성에 가까운 지칭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디아스포라는 강제적으로 나라를 떠나게 된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에서 기인하였으나, 시대를 거치며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Tötölyan(1996)은 시대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온 디아스포라가 몇 가지 공통적인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가 설명한 디아스포라의 공통적인 특성들 중 일부를 인용하여 디아스포라인 탈북 아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1. 강제적 조건으로 인해 대규모 인구 또는 전체 공동체가 고향을 벗어나 정착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전형성이 형성된다. ‘강제’ 라는 용어의 정의는 변화될 수 있다.

2. 1968년 이전의 정의에서 디아스포라는 이탈 이전 이미 명확하게 그들 고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이주지의 시선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들이 고국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도, 이주지에서 한 집단에 대한 타자화의 시선은,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전환하게 한다.

(Tötölyan, 1996: 11-14, 번역 및 요약 - 연구자).

탈북민은 국가의 강제에 의해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첫 번째 설명은 탈북민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북한은 국경을 넘는 이들에게 수용소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혹독한 벌을 줌으로써 북한 주민이 국가의 경계 안에 머물게 하는 정책을 편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북한의 국경을 넘고 있다. 이들의 탈출 이유는 ‘생존’ 과

관련된다. 즉, 전쟁이나 정치적 폭동이 그들을 국경 밖으로 내몬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서의 삶이 지속될 경우 그들의 생존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표면적으로 국가의 강압은 아니었지만, 절대 국경을 넘지 말라는 국가의 경고 앞에서도 그들이 월경해야만 했던 것은 국가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Tötölyan(1996)은 ‘강제’의 정의가 현대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 스스로 추방을 선택하도록 하는 내면적인 강압을 휘두른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민은 디아스포라의 첫 번째 특성과 닮아있다.

《국경을 넘는 아이들》(박현숙, 2013)은 탈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인물들의 삶을 그리고 있다. 첫 번째 탈북인물들은 주인공 강일의 외삼촌을 비롯한 강일의 가족이다. 강일의 외삼촌은 뛰어나게 똑똑했지만, 외삼촌의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가 월남하면서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지위가 박탈되고 보위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된다. 외삼촌이 탈북한 후 외삼촌의 탈북 사실이 발각되기 전에 탈북을 시도한다. 두 번째 탈북인물은 미진이의 사촌 동생 순종이다. 순종이는 장마당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다. 순종이가 꽃제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촌인 미진이네 가족이 월남을 했기 때문이다. 미진이네 가족이 월남한 후 순종이 아빠는 보위부에 끌려가 돌아가시고, 같이 있던 엄마도 돌아가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이는 탈북을 하려는 강일과 강일의 엄마에게 자신을 데리고 가 달라고 애원하고, 결국 순종이는 강일의 가족과 같이 탈북하게 된다. 《국경을 넘는 아이들》(박현숙, 2013)에 탈북하는 두 인물의 상황을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의 국가에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이는 국가가 이들을 억지로 국경을 넘게 한 내면적인 강압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두 번째 항목과 관련하여 탈북민은 자신이 북한에서 출생했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비자발적 탈북민과 자발적 탈북민 모두에게서 드러난다. 비자발적 탈북민의 경우는 탈북 동화 《크로싱》(최금락, 2008)에 등장하는 김용수의 삶에 의해 짐작할 수 있다. 준이 아빠 김용수는 부인의 약을 구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서 가족과 이별하게 된다. 오직 약값을 구하기 위해 그는, 인터뷰를 하면 돈을 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인터뷰를하기로 약속한다. 재중 독일대사관에 망명한 후 그의 인터뷰는 전세계에 중계된다. 그저 부인의 약을 구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었지만, 그의 인터뷰가 전세계에 방송되면서 그는 다시는 북한에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선택의 여지 없이 대한민국에 오게 된다. 동화에 짧게 등장하는 대한민국에서의 그의 삶을 볼 때, 중국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던 초기의 김용수는 자신을 당연히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인과 아들 준이를 북한에 두고 온 김용수는 특히 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아빠를 만나고자 국경을 넘었던 준이 역시, 과거 아빠가 북한의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래서 국경을 넘다 끌려간 교화소에서 자신의 아빠를 변절자라고 말하는 것에 당당하게 아니라고 우길 수 있었다. 그런 준이가 대한민국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국이 북한임을 쉽게 잊지는 못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수의 탈북 아동과 그 가족은 생존을 보장해 주지 않는 국가로부터 탈출하였다. 그들의 월경은 국가가 휘두른 내면적인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국에 대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국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국경을 넘어 도착한 곳에서 혼종적

인 정체성을 가지고 경계인으로 살아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러한 탈북 아동의 모습이 그려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탈북 아동은 북한에서 태어난 자신, 대한민국 어린이는 겪지 못한 슬한 인생의 고난을 가진 자신, 그리고 그러한 출신과 경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자신이라는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다. 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우리는 특별히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아동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 아동이 가지는 이러한 혼종적인 정체성은 디아스포라의 본질이면서 그들이 정착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온전히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혼종적인 정체성을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탈북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독자의 이러한 이해의 확장은 이웃에 함께 살아가는 탈북 아동에 대한 존중으로 나아가게 한다. 탈북 아동의 혼종적인 정체성이 드러나고, 이를 통한 독자의 이해의 지평이 확장되는 공간이 바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공간인 것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것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탈북 아동에 대한 서사임을 의미한다.

## 2)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경계인의 삶을 다룬 다문화 문학

디아스포라문학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탈북 아동을 통해 그들과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을 담은 다문화 문학이기도 하다. 탈북 아동은 그들이 정착한 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

이며 적응해야 하는 인물이고,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러한 문화적 적응을 해 나가는 탈북 아동의 모습이 그려진다.

전영주(2018: 228)에 의하면 다문화라는 용어는 “여러 문화가 서로 밀접한 관계로 맺어진 가운데 ‘문화’ 간에 생기는 충돌이 가시화되면서 이 문제들을 조화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생성된 (긍정적)인 것”이다. 다문화 문학을 범박하게 말하면 이러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담긴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의 “이질적인 여러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소재로 하는 문학”<sup>4)</sup>이나 임경순(2011)의 “다문화사회를 다루는 문학, 다른 문화권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창작된 문학” 및 이유숙(2013)의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여성의 삶 또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삶을 다룬 소설”은 이러한 의미를 담은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다문화 문학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본다. 최근에는 다문화 문학의 효용까지 포함하여 다문화 문학을 정의하는 추세다. 다문화 문학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다문화 문학을 다양한 문화의 존재 자체를 다룬 문학으로 파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존재 지향성, 즉 공존을 강조하는 문학으로 파악한다.

《딱친구 강만기》(문선이, 2003)의 만기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학교생활을 힘들어한다. 말하면 불쑥 튀어나오는 북한말에 아이들이 뭐냐고 묻는 것에도 당황한다. 아이들의 웃는 얼굴도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다. 도시락을 곱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곱밥이 뭐냐고 웅성거리

---

4)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검색일: 2023.10.02.

는 아이들의 모습에 만기는 머리카락까지 쭈뼛 설 정도로 신경이 곤두섰다. 만기는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않고 그림만 그리다가 실험실에 가지 못했다. 아이들이 그림만 그리고 무서운 눈빛을 하고 있는 만기에게 “실험실에 가자.” 고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 아동 수향은 만기와 다르다. 수향이는 “북한에서 왔는데도 똥똥하네.” 라는 아이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내래 북조선에 있을 때도 예배지 않아 원래부터 말라깽이 아니었다.” 고 당당하게 말한다. 수향이는 자신의 당당한 모습을 통해 ‘탈북 아동은 다 빼빼 말랐다’ 는 대한민국 아이들의 편견에 맞서고 있다. 이렇게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아동이 만나고 부딪히는 혼성적인 공간이다.

다문화 문학으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문학 공간이 현실을 반영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주변의 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된다. 다문화 서사 텍스트는 “탈국경인이나 다문화인이 살아가는 물리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구성원들 개인의 심리 내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들을 인식하는 심리적 공간이며, 이 공간은 주류자의 문화와 이주자의 문화적 차이가 혼성되는 공간(선주원, 2020: 82)” 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선주원(2020)은 이러한 다문화 서사 텍스트를 호미바바의 개념을 빌려 ‘잡종성의 공간’ 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화적 차이가 혼성되는 잡종성의 공간에서 주류자의 문화와 이주자의 문화는 그 경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하여 문화적 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유대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존재들에게 상호교섭에 의한 정체성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잡종성의 공간에서 주류자와 이주자 간의 상

호교섭에 의한 문화적 유대는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잡종성의 공간에서 주체들은 자아 및 타자에 대한 확장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인간다움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신주원, 2020: 87).

이주자를 탈북 아동으로 생각할 때, 다문화 문학에 대한 위의 설명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드러낸다. 이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다문화 문학에 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위의 설명을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통해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의 아동은 그 경계에서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하여 문화적 유대를 형성한다. 이러한 문화적 유대의 형성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아동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정체성의 갱신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유대 형성 및 정체성의 갱신은 자아 및 타자에 대한 확장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인간다움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 아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 3) 분단의 증인인 탈북 아동의 삶에 관한 분단문학

위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임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또 다른 면에서 분단문학에 속한다. 몇몇 연구자들이 분단문학에 대해 개념을 정리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분단문학에 대한 개념 정의

권영민 (1992)	민족 분단의 상황적 조건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근거로 하여 성립된 문학.
강진호 (2000)	분단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분단체제가 해체되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문학.
심민경 (2005)	분단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 아래 창작된 작품으로 전쟁과 분단의 상황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 내어 인간과 사회의 진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는 작품
정재림 (2006)	해방 이후로부터 분단 문제를 중한 소재로 다룬 한국 현대 문학.
한신혜 (2017)	분단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분단의 상황을 잘 드러낸 작품. 분단의 원인과 고착화 과정, 그리고 분단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 것.
김영애 (2020)	분단체제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토대로 그 모순과 극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

‘분단문학’은 작품의 소재가 분단 문제임을 강조한 것을 지칭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분단 시대의 모든 문학’을 폭넓게 의미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위 <표 3>에서 분단문학의 개념을 보면, 기존의 전쟁소설과 전후소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강진호(2000)과 같이 시기에 중점을 둔 정의와 그 외의 경우와 같이 전쟁을 문학적 소재로 취하는 내용에 중점을 둔 정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면적 정의가 시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연구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위 연구들은 모두 분단문학의 미래적 가치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학비평용어사전》(2006)의 아래 인용은 분단문학이 가진 미래적 가치를 잘 설명하고 있다.

분단문학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학자에 따라 범위나 시기 등의 규정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남북 분단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광의의 분단문학은 분단시대의 모든 문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장래의 우리 민족이 통일을 이

루는 시점까지의 남북한 모든 문학이 분단문학에 포함된다. 즉 분단시대 문학의 준말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단순한 시대구분에 의해 포괄적으로 분단문학을 정의하는 것에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협의의 분단문학은 분단으로 빚어진 민족의 모든 갈등과 모순을 파헤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사상과 정서를 담은 작품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문학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분단문학은 보다 정제된 의미에서는 민족의 분단 현실을 통일의 터전으로 끌어올리는데 유익한 내면적 가치와 힘을 내포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849).

《문학비평용어사전》(2006)은 “단순한 시대 구분에 의한 정의가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서 보다 정제된 의미의 분단문학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민족의 분단 현실을 통일의 터전으로 끌어올리는 데 유익한 내면적 가치와 힘을 내포하고 있는 문학”이다. 이는 과거적 사건인 분단보다 통일이라는 미래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현재적 기능으로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대별로 분단문학은 담당했던 기능을 달리한다. 시대별로 분단문학이 담당했던 교육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먼저 6·25전쟁 이후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작품은 고발이 목적이 아니라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후 정부의 주도와 함께 활발하게 창작되고 보급된 반공 문학은, 여러가지 폐해가 드러나기도 하였으나, 통일을 전제로 삼고 문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선안나, 2006). 이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막대한 아픔이 있게 한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현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수한 사건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에는 반공주의 문학에서 다루지 못했던 여러 소재가 아동문학에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문영숙, 2020), 《할아버지의 뒤주》(이

준호, 2007) 등과 같이 북한군을 가족으로 둔 이야기나 《노근리, 그해 여름》(강전희, 2005)과 같이 미군이나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에 관한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동화는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을 표면에 끌어올림으로써 현실을 직시하고 화합을 이루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단 현상은 전쟁이라는 과거 사건의 현재적 지속성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러한 면에서 탈북민은 전쟁의 실제적 증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민족적 화해와 동질성의 회복 추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중심 소재(박덕규·이성희, 2012: 197)”로 통일이라는 미래적 가치에 비중을 두면서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탈북 아동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의 고통을 포함하는 탈북소재 아동문학을 미래적 가치를 지니는 분단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그리는 서사가 탈북 아동의 성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의식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 데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경험하는 사회적 타자화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조력자를 통해 회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픔과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갈등이 해결되고 아픔이 치유되는 장면을 형상화함으로써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게 한다. ‘먼저 온 미래’라고 불리는 탈북 아동이 지금 이 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남북의 사람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러한 점에서 분단의 현실을 통일의 터전으로 끌어 올리는 데 유익한 내면적 가치와 힘을 내포하



고 있는 분단문학이다.

지금까지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 분단문학으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알아보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전면적으로 취하는 사실적인 표현 방법은 이러한 장르적 특성과 함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드러낸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그리는 탈북 아동의 고통, 부적응, 타자화에 대한 찢긴한 묘사들은 아동의 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동문학으로서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탈북이라는 아픈 소재를 아동의 동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사실적인 표현방식을 택했을까? 이에 대해 《류명성 통일 빵집》의 박경희 작가의 말을 통해 답하고자 한다.

내가 만난 탈북 아이들의 가장 큰 소원은 통일입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가 있기 때문이지요. (중략)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분단이나 통일이라는 말조차 생소한 청소년들에게 탈북 아이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경희, 2013, 밑줄-연구자).

박경희 작가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탈북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마음 바탕에 ‘북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과 어릴 적 같이 놀던 친구’가 있다고 알려 주고 있다. 작가는 탈북 아이들의 아픔과 희망을 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한다. 그 아픔과 희망이 바로 탈북 아이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하는 것이 탈북 아이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은 아니다. 작가는 탈북 소재 문학작품을 통해 탈북 아동을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탈북 아동의 삶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대한민국 청소년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사실적 표현 방식을 취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리얼리즘은 작중 인물의 삶을 현실 공간의 인물들과 매우 흡사하게 그려내어, 어린이 독자가 탈북 아동의 삶에 진실하게 다가가도록 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을 통해 대한민국의 아동과 탈북 아동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탈북 아동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은 탈북 아동을 포함한 구성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용(1992: 123)은 “아동문학에 있어서 이상적인 리얼리즘은 현실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됨을 추구하고 참된 삶의 방법까지도 모색하는 차원에까지 도달해야 한다”고 하였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 표현은 아동 독자가 자신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아동의 삶을 공명하여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중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의 시공간적 배경을 가진 작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가상 배경을 가진 작품들도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적 표현 방식을 취한다. 통일이라는 가상의 배경만 제외하면, 작품에 묘사되는 여러 사건들은 실제의 통일 시대에 접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들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먼저 《북녘 친구 남녘 동무》는 통일이라는 가상의 시공간에서 남북의 어린이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모자이크식으로 구성한 작품이다. 통일 후 2년이 안 된 시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는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통일 후 혼란스러운 사회 등에 대해 철저한 리얼리티를 반영함으로써 통일로 인해 매우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드러낸다. 동화의

배경은 판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현실에서 있음직한 것들로 채움으로써 통일 시대라는 가상의 시공간은 리얼리즘을 통해 지금 현실의 시공간과 이질적 거리감 없이 연결 된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에 판타지를 도입함으로써 유용한 문학적 도구를 획득했고, 그를 통해 현실을 확장(안수연, 2017a: 95)” 시키는 효과를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확장으로 작용하는 판타지에 대해 안수연(2017a)은 “일종의 증강현실에 가깝다” 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볼 때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의 시공간은 현실을 확장하여 현시대가 지닌 실질적 문제를 더 깊게 탐색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구현된 가상의 시공간은 혹독한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판타지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더 깊게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적 표현 방식은 문학 공간을 실제하는 공간과 연결하게 함으로써, 작중 인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실존하는 이웃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확장되게 하는 도구적 성격을 갖는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독특한 사실적 표현 방식은 통일이라는 가상의 시공간조차 현실로 가져와 삶의 성찰을 견인하고 갈등의 해결을 모색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 2. 탈북 소재 아동문학과 기억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탈북 아동과 탈북 아동 주변의 인물들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 탈북 아동의 아픔, 그리움, 희망을 형상화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들은 탈북 아동이 속한 탈북민 공동체와 대한민국 구성원의 조화로  
운 공존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치  
는 기억은 개인적 차원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차원에 관한 것이다. 오랫동안 개인적, 생물학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기억이 집단적 차원, 사  
회적 차원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00년대 이후부터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된 기억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본고는 특히 Assmann, A.  
과 Assmann, J.<sup>5)</sup>의 ‘문화적 기억’에 주목한다. 문화적 매개체에 의해  
의미가 고정된 기억은 세대를 거쳐도 동일한 의미가 전수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억의 형태를 문화적 기억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억에 대한 문학의 역할, 그리고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가. 문화적 기억과 문학

### 1) 문화적 기억의 의미와 특성

1900년대 이후 학문적 관심 분야로서의 문화 연구가 본격적으로 등장된  
시기에, 개인의 차원에서 논의되던 기억을 사회적 또는 집단적 현상으로 이  
해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졌다. 문화적 기억은 이러한 움직임 속  
에서 파생된 것으로, 사회가 과거를 기억하는 복잡한 방식을 설명하는 유용  
한 용어이다. Assman & Czaplicka(1995)는 문화적 기억이 “Halbwachs가 이  
야기한 집단 기억에서 문화적 특성이 결여된 것(Assman & Czaplicka, 1995:  
126)”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문화적 기억이 Halbwachs의 집단 기억의 개념

---

5) 이하 ‘Assmann 부부’ 로 기록하고자 함.

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rll & Nünning(2008: 8)은 집단 기억이 사회 문화적 맥락이나 틀, 그리고 심리학의 상황적 접근에 의해 개인의 기억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Halbwachs가 문화적 기억의 속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학자라고 하였다. 여러 학자가 집단 기억과 문화적 기억의 상관성을 밝혔듯, 문화적 기억의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집단 기억의 개념을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 설명하는 집단 기억 및 문화적 기억의 개념은 《기억의 공간》(Assman, A, 변학수·채연숙 역, 2011) 및 Assman & Czaplika(1995)의 논의를 참고한 것이다.

Halbwachs가 말한 집단 기억은 사회 내 구성원들 사이에 규정된 심리적인 규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집단 기억은 공간 의식에 의해 매개된 생생한 기억으로서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구체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의사소통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억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에 따르면 기억이란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구성틀을 통해서만 매개되는데, 집단 기억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특수한 정체성을 제공한다. Assmann 부부는 Halbwachs의 이러한 논의에 동의하지만, 기억이 객관화된 문화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Halbwachs와 다른 해석을 한다.

Halbwachs는 살아 있는 의사소통이 객관화된 문화의 형태로 구체화될 경우 기억이 아닌 역사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Assman & Czaplicka는 객관화된 문화와 조직적 의사소통의 맥락에도 집단과 집단 정체성과의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집단과 집단 정체성이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은, 집단은 그들이 가진 통일되고 특수한 성격을 바탕으로 형태를 가진 규범적인 것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재생산할 수 있다

(Assman & Czaplicka, 1995: 126)는 의미이다. Assman & Czaplicka의 논의는 개인의 기억이 아닌 공동체의 기억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문화적 기억과 집단 기억은 유사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화적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는 집단 기억과 달리, 기억이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Halbwachs가 집단 기억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기억의 전승에 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문화적 기억에 대해 Assman & Czaplika(1995)는 “사회의 상호작용적 틀에서 행동과 경험을 지시하는 모든 지식에 대한 집합적 개념이며, 반복적인 사회적 실천과 개시를 통해 세대를 거쳐 얻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문화적 기억에 대한 최초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적 기억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전진성, 2005)”, 혹은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맥락들을 고려한 기억의 문화적 의미와 형식 혹은 기억의 문화적 실천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동적인 개념(강승묵, 2020)” 등이 그것이다. 문화적 기억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은 문화적 기억이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매체에 담긴 기억은 세대를 지나도 기억이 전수될 수 있다. 그러한 기억은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된 의미를 부여한다. 또한 기억이 매개체에 매개되었다는 것은 기억이 세대를 지나도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문화의 속성에 따라 문화적 기억의 의미가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적 기억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기억의 특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Assmann & Czaplicka(1995)는 문화적 기억이 가지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체성의 구체화(The concretion of identity)’이다. 문화적 기억은 그룹이 자신들의 통일성과 독특성을 인식하는 데 기반이 되는 지식의 저장소를 보존한다. 문화적 기억의 지식 공급은 소속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즉 자신에게 속한 것과 낯선 것 사이의 뚜렷한 구분으로 특징지어진다. 문화적 기억의 지식 공급은 소속되는 사람들과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 즉 자신에게 속하는 것과 외부적인 것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둔다.

둘째, ‘재구성 능력(its capacity to reconstruct)’이다. 문화적 기억의 재구성 능력은 첫 번째 특징인 ‘정체성의 구체화’와 관련한 것이다. 어떤 기억도 과거를 보존할 수 없다. 기억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각 시대의 사회가 현대적인 기준 내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것’ 뿐이다. 문화적 기억은 재구성을 통해 작동한다. 즉, 문화적 기억은 실제 상황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지식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축적된 텍스트, 이미지, 행동 규칙이 총체적 지평으로 작용하는 아카이브의 잠재성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각 현대적 맥락이 객관화된 의미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배치하여 고유한 관련성을 부여하는 실제성 모드이다.

셋째, ‘형성성(Formation)’이다. 형성, 즉 전달된 의미와 집단적으로 공유된 지식의 객관화 또는 결정화는 문화적으로 제도화된 사회의 유산에 전승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넷째, ‘조직성(Organization)’이다. 문화적 기억은 의사소통 상황을 공식화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기억 보유를 전문화한다. 문화적 기억이 정경화된 텍스트로 존재하는 경우, 문화적 기억은 엄청나게 확장될 수

있고 극도로 차별화될 수 있다.

다섯째, ‘규범성(Obligation)’이다. 문화적 기억은 지식과 상징의 문화적 공급을 구조화하는 명확한 가치체계와 중요성의 차별화를 낳는다. 문화적 기억은 교육, 문명화, 인간화라는 형성적 측면과 행동 규칙을 제공하는 규범적 측면의 의무를 가진다.

여섯째, ‘성찰성(Reflexivity)’이다. 문화적 기억은 일반적인 관행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실천 성찰적’이며, 문화적 기억 스스로 설명하고 통제하고 수용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이미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적’이다(Assmann & Czaplicka, 1995: 130-131).

이러한 문화적 기억은 각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서 텍스트, 이미지, 예식, 예술, 기념관 등으로 공고해진다. 문화가 포괄하는 것이 넓듯이, 문화적 기억이 포괄하는 의미역 역시 매우 넓고 복잡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기억의 연구는 인식론, 인간학, 문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거론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 기억의 의미역이 매우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Assmann & Czaplicka(1995)의 논의는 문화적 기억이 가진 특성을 자세하게 언급함으로써, 포괄적인 문화의 의미로 인해 추상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문화적 기억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 2) 문학에 대한 기억의 역할

Erll & Rigney(2006)는 문학이 기억의 생산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문학의 역할은 ‘기억의 매개체, 기억의 대상,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는 매개체’로서의 문학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논의



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기억의 매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유의미한 연관성을 제공하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문학

문학작품은 과거를 서사라는 형태로 회상함으로써 집단적 기억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글쓰기(장르적 관습, 관점, 은유 등)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 소설, 역사 드라마, 자서전이라는 장르가 가장 분명하겠지만, 다른 문화 형태와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에서의 이용 가능한 형식도 계속 변한다. (중략) 이런 식으로 문학을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생각하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사건과 사람을 기억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종 이전 텍스트를 기억하고 이전 이야기를 다시 쓰는 문제이기도하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된다.

#### • 기억의 대상으로서의 문학

문학 작품은 일반적으로 후기 시점에 유통되기 때문에 세대 간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 즉, 이전 시기에 구성되거나 쓰여진 텍스트를 기억하는 것은 문화적 기억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문학 연구에서 정경 형성에 관한 많은 전통적인 논의는 사회가 어떤 기초 텍스트를 기념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방식 등으로 재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문학이 오래된 텍스트에 새로운 문화적 생명을 부여하는 상호 텍스트 관계의 형태로 ‘그 자체의 기억’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중략) 문학적 기억 행위는 문화적 기억의 지속적인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우리의 성찰에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기여한다.

#### •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문학

문학은 기억의 행위를 상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기억을 관찰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설명한 방식으로 집단 기억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억이 개인과 그룹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지식 생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학은 기억의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다. ‘개인 기억의 미메시스’로서 철학 및 심리학과 같은 다른 기억

관찰 담론과 대화하고 있다. 반면에 ‘문화 기억의 미메시스’으로서 문학은 인식론, 윤리, 집단 기억의 작용을 성찰하고, 과거의 해석과 적절한 형식에 관해 역사가 및 사회학자와 대화한다.

(Erlil & Rigney, 2006: 112-113, 번역 및 요약-연구자).

위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작품이 기억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은 문학작품이 기억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기억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문학작품은 역사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문학작품은 다양한 내용을 담는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가 됨으로써 그와 관련된 집단 기억의 생성에 도움을 준다.

기억의 대상으로서의 문학이란, 문학작품의 내용으로서 기억을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문학작품에 담긴 내용에 대한 의미, 즉 해석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전 시기에 생산된 텍스트를 검토하여 문학적 기억으로 형상화할 기억의 대상을 선택한다. 기억의 대상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논쟁을 통해 더 가치 있는 문화적 기억이 새롭게 생산되는데, 가치 있는 문화적 기억을 담은 오래된 텍스트는 새롭게 생산된 문학작품과 상호 텍스트의 관계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한다.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는 매개체란 문학작품의 기억이 개인과 집단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제공하는 문학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문학작품에 담긴 문화적 기억은 생성 혹은 소멸되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도 하며, 다른 여러 담론과 관계하며 대화하기도 한다. 문화적 기억과 관련한 문학의 역할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을 살피는 본고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뚜렷이 구분하여 각각 그 의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매개체라는 전제로

그 포괄적인 의미를 논할 것이다.

## 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

문학은 기억을 담고 있는 매체이다. Nuenning & Sommer(2004)는 문학이 기억을 담는 매체가 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은 우리가 ‘기억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부를 수 있을 처리 방식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장소와 이미지와 의미 적재된 회상 공간과의 기억술적 연결(예를 들어 여행담에서), 수많은 일인칭-소설과 서정시의 구조원칙으로서의 개인적 회상의 표현(예컨대 회상하는 자아와 회상되는 자아 간의 뚜렷한 차별화를 통화여), 혹은 역사 소설에서 ‘그 당시 - 그리고 - 오늘의 수사법’으로 재발견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사이를 오가는 회상의 기본운동을 꼽을 수 있다. (Nuenning & Sommer, 2004, 문화학연구회 역, 2005: 171).

작가가 현실을 창조적인 글쓰기로 표현한 것은 강력한 기억의 효과를 수반한다. 이는 비단 작가의 경험과 관계된 사건이나 일인칭 소설 혹은 역사 소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형상화한 문학 텍스트도 이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이 “문학적 기억의 탄생(변학수, 2008: 32)”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에 의해 탄생한 문학적 기억은 독자에게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이유와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태를 제공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은 “기억의 매개체이며 망각에 대한 중요 해독제이자 지금까지 방치된 집단들을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촉매제(Wurth & Rigney, 2019: 378)”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역시 기억을 담는 매체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에는 탈북 아동이 속한 공동체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크게 고통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그려진 고통의 기억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고통, 북한 국경을 넘는 고통, 국경을 넘은 후 겪는 험난한 이주 과정, 고국을 떠나 정착한 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 등을 포함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리얼리즘의 표현 방법을 취함으로써 탈북 아동을 비롯한 탈북민의 고통의 기억을 짙게 묘사한다. 1990년대 말 북한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는 생존을 위한 “경제적 디아스포라(박덕규·이성희, 2012: 14)”가 대대적으로 발생되었다. 탈북 과정에 중심을 둔 초기의 탈북 소재 작품들 중에는 이 시기 북한에서의 힘들었던 삶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작품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의 삶은 아동문학에서는 다루기 어려울 만큼 강도 높은 고통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하기까지 탈북민이 겪어야 하는 과정 역시 탈북민과 탈북 아동에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의 기억일 수 있다. 그러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러한 탈북 아동의 아픔을 담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점차 탈북 과정보다는 탈북 정착에 더 비중을 두는 서사로 변화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의 아픔이 생존과 관계된 아픔이었다면, 탈북 정착 과정에서의 아픔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아픔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주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탈북 아동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생존을 오가며 정착한 곳에서 타자화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탈북 아동의 모습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기억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그리움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그려진 그리움의 기억은 탈북 아동과 탈북민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적 존재라는 것에 기인한다. 탈북 아동이 자신들의 고국인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의 본성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이 형상화되는 양상도 다양하다. 작중 탈북 아동의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하게 하는 매개체는 때로 장소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사물 혹은 생물, 혹은 언어일 수도 있다. 또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분위기일 수도 있다. 탈북한 가족의 연락을 기다리는 손전화, 고향과 닮은 자연의 풍경, 고향에서 먹던 떡, 북한 사람이 사용하는 고유한 언어들 등은 작품 속에서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로 자연스럽게 자리잡는다.

때로 그리움의 기억은 아픔의 기억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하는 매개체는 아픔의 기억을 함께 소환한다. 그러나 아픔이 동반되는 그리움이라 하더라도 그리움의 기억이 탈북 아동을 좌절하게 하는 요인만은 아니다. 그리움이란 회귀할 곳에 대한 본능적 감정을 일깨우면서, 그리움을 기억하는 주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그가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 소재 아동 문학에는 탈북민과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희망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주로 탈북 아동이 경험하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지만, 그 사건은 탈북 아동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탈북 아동의 주변 인물들과 관계된다. 탈북 아동의 주변 인물들은 탈북 아동의 희망의 기억들을 함께 공

유하게 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희망의 기억은 먼저 민족의 하나 됨을 바라는 ‘통일로의 열원’이며, 다음으로 이주 과정의 생존과 정착 국가에서의 뿌리내림을 포함하는 ‘정체성의 회복’이다.

통일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북한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통일로의 열원은 탈북민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통일에 대한 간절함이 깊음을 드러낸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생사의 갈림길을 여러 번 겪으며 정착한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움츠러든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를 극복하는 희망의 기억을 담고 있다. 탈북 아동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하는 가운데 다양한 인물들이 탈북 아동의 조력자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억은 탈북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작중 인물들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들 기억은 함께 어우러져 구성원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의식 형성에 기여하는데,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 형성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관해서는 Erll & Rigney(2006)가 말한 ‘문학에 대한 기억의 역할’을 참고하여 논의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을 비롯한 탈북민이 가진 기억을 담는 그릇, 즉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과 탈북민의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을 담아냄으로써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기억의 대상으로서의 문학’의 역할을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작가는 우리 사회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며 타자화의 시선을 견디고 있는 탈북 아동과 탈북민의 이야기를 선택하여 문학 텍스트로 형상화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들이 함께 형성하는 중요한 의미, 곧 탈북 아동을 비롯한 탈북민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기억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는 매개체’이다. 과거의 기억을 상상력으로 표현하여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이제 관찰 가능한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기억의 매개체’로서 집단 기억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집단에게 기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제공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서사가 탈북 과정 중심에서 점차 탈북 정착의 서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는 매개체라는 관점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 초반에 탈북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아동에 대한 서사가 월등히 많지만, 《봉주르, 뚜르》(한윤섭, 2010), 《떠돌이별》(원유순, 2015) 등은 한 나라에 정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탈북민의 기억을 담아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에서 제한하는 탈북 아동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많은 연구들

은 이들에 대한 서사를 탈북 소재 아동문학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열두 살의 모자이크》(황선미, 2021)에는 한국과 북한이 아닌 제 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제나는 탈북 배경의 아동에 해당한다.<sup>6)</sup> 이렇게 주요 인물을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형상화하지 못했거나 주목하지 못했던 기억을 담게 된다. 이렇게 출생 장소, 혹은 거주 장소가 달라도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서사를 탈북 소재 아동문학으로 보는 인식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외에도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기억들은 민감한 역사 혹은 사회 제도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개인 기억의 미메시스로, 그리고 문화적 기억의 미메시스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다양한 학문과 대화하며 ‘문화적 기억의 생산을 관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으로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을 살피고 그 의미를 논함으로써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형성하는 문화적 기억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

6) 이에 대해서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서 상세히 밝혔다.



### Ⅲ.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기억의 형상화는 작중 인물이 경험하는 중심 사건에 의해 크게 고통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탈북 아동은 그들이 살던 고국의 이탈로 인해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탈북 배경의 아동은 제도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중국에서의 삶, 혹은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는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인해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인 탈북 아동은 고국 혹은 부모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며, 이주의 과정 중에 있더라도 지속적인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러한 탈북 아동과 탈북민의 기억이 형상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기억의 형상화로 간주될 수 있는 지점에 주목하여 기억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다. 해당 작품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논의의 구체성을 더할 것이다.

#### 1. 고통의 기억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삶을 현실에 근거하여 그리고 있기에 탈북 아동이 겪은 고통의 시간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불법적인 국경 넘기의 원인이 된 북한에서의 삶과 북한을 탈출하여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탈주의 여정 가운데 탈북 아동과 그 가족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벗어난 후에는 그들의 경계인으로서의 위상으로 인해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의 탈주의 여정 가운데 태어난 제3국 출생 아동 또한

경계인의 신분을 가지고 사회적 타자의 시선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러한 탈북 아동의 고통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 가. 북한, 고국에서의 아픔

1990년대 말 북한에서 시작된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이 극에 달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탈북민은 살기 위해 나라를 탈출하고자 하였다. 이런 면에서 북한 주민의 국경 넘기는 생존이 목적이었다. 굶주림뿐만 아니라 정치적 탄압에 의한 생존이 국경을 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는 북한에서의 삶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다. 작품에 형상화된 고통의 삶에 대한 현실적 묘사는 북한 주민의 탈북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말해 준다. 《크로싱》(최금락, 2008), 〈비닐뚱〉(김바다, 2002) 등 현재 절판된 작품이나 수기에 가까운 작품인 《거리 소년의 신발》(김성주, 2017) 등은 끔찍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북한에서의 삶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작품은 탈북 과정보다는 탈북 이후의 정착이 보다 강조되고 있기에 굶주림, 사상적 자유에 대한 제한 등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은 간략하게 서술된다. 여기서는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개구리 울음 소리》, 《개성빵》을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아픔의 기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탈북 소년 민철이의 좌충우돌 대한민국 적응 이야기인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에는 민철이의 한국 생활이 주된 이야기인 가운데 북한에서의 고통의 장면을 지나치듯 서술하고 있고, 선일의 삶을 짙막한 에피

소드로 전하는 《개구리 울음 소리》는 사건의 긴장감보다는 다큐멘터리와 같이 담담한 서술로 북한에서의 아픔을 기술하고 있다. 이 둘은 북한에서의 삶 보다는 탈북 아동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고통의 장면은 많지 않다. 그러나 짧게 드러나는 장면에도 북한에서의 고통의 기억이 여실히 드러난다.

아빠는 무산 광산에서 석탄을 캐다. 그러다 2년 전, 내가 열 살 때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 나는 너무 굶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 날이 갈수록 뼈째 마르고 배만 터질 듯 불러왔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56쪽.

동생과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동생의 이름은 금혁입니다. 선일도 북한에서는 금철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습니다. 선일에게는 형이 셋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형편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절에 배급이 끊겨 엄마 아빠가 식량을 구하러 도시로 나갔고, 장마당에서 체포돼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에 형들은 모두 저 세상으로 갔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선일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는 목숨 걸고 선일을 키우셨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 92쪽.

《개성빵》은 위의 두 작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엄마와 동생과 함께 대한민국에 온 탈북 아동 기태의 이야기인 《개성빵》은 북한에서의 고통의 기억에 대해 많은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내던 이웃이 기태 가족을 감시하는 장면, 강 건너 관광버

스를 보고 부러워하는 말을 한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기태가 수를 쓰는 장면,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장면 등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집에서 가까운 산이 모조리 폐기밭으로 변하자 땀나무도 먼 산에서 헤와야 했다. 게다가 집을 떠나 있을 때 대소변을 보면 그걸 담아올 오물 주머니도 들고 다녔다. 똥과 오줌은 최고의 비료였다. 그러나 메마르기 짝이 없는 땅은 식구들이 모은 오물로는 거름이 턱도 없이 부족했다. 비료가 없으니 겨우 짝을 내민 강냉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겨우 강냉이 자루가 달렸어도 이가 다 빠진 노인의 잇몸처럼 알갱이가 띄엄띄엄 몇 개씩 붙어 있었다. 할머니는 기태와 기옥이의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신신당부를 했다.

“비료가 있어야 거름을 줄 터인데 참 답답하다. 오줌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해. 우리 형편에 가장 귀한 비료가 오줌이야. 기태, 기옥이 내말 알겠지?”

그러나 끼니도 잊지 못하니 대소변이 많을 리가 없었다. (54쪽).

<2> 막 아침 식사를 끝내고 상을 물리는데 아랫집 아저씨가 기태네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중략)

“이밥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는 거 보니 동무 집에 좋은 일이 있는가 보오.”

아랫집 아저씨의 말에 식구들 모두 바짝 긴장했다. (중략)

“기태 엄마가 장사가 잘 된다 들러됐습다. 돈을 좀 쥐여줬더니 태도가 짝 바뀌어 싱글벙글하면서 가지 않습까? 이웃끼리 서로 잘 지내야 한다면서.”

(74-77쪽).

<3> 미끈한 유람버스가 중국 쪽 강변에 새로 만든 길을 따라 백두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중략)

“오빠, 저 유람버스는 새 거다. 크기도 술해 크지? 나도 저런 유람버스 타보고 싶다.”

바로 그때였다. 국경수비대 한 명이 다가오더니 고개를 가웃거리며 기옥이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기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중략)

“야, 이 등신 촌바우야! 저건 남조선에서 온 거짓 유람버스야. 속아 넘어가

면 안 돼!” (중략) 기태는 국경수비대들이 모두 듣도록 큰 소리로 기옥이에게  
화를 내고는 강 건너 유람버스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다. (83-86쪽).

<1>에서 기태와 기태의 가족은 식량 배급이 끊기고, 땀기밭에 희망을  
걸었지만 거름이 없어 옥수수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다. 땀기밭은 국어사  
전에 따르면 “큰 토지에 딸린 조그마한 밭”을 의미하며, 북한에서의  
땀기밭은 매우 작은 규모의 농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sup>7)</sup> <2>는 이웃이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태의 집은 기태의 엄마가  
탈북 후 보내주신 돈으로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기어 먹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그 낚새를 눈치채고 온 것이다. 북한 주민에게 탈북한 가족이  
있다는 것은 온 가족이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기때문에, 아랫집 아저씨의 등  
장은 기태 가족을 바짝 긴장하게 했다. <3>은 기옥이가 유람버스를 부러  
워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국경수비대가 기옥이를 주시하고 다  
가온다. 이때 기태가 국경수비대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기옥을 야단친  
다. 영문을 모르고 오빠에게 혼난 기옥은 서러워서 울지만, 기태의 기지  
로 기옥과 기태는 상황을 무사히 넘기게 된다.

거름으로 쓰기 위해 집을 떠날 때 대소변을 담은 주머니를 들고 다니  
는 장면이나 이웃에게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 이웃에게 돈을 주는 장면,  
그리고 국경 너머 중국의 풍경을 구경하다가 자신이 사는 북한과 달리

7) 북한에서 개인 땀기밭 경작 현상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에서 시작되어 1980  
년대 중반 이후 국가배급체계가 약화됨으로써 활발해졌다. 1980년대 말에는 단  
속의 대상이 되어 한동안 통제된 적도 있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와 식량난의  
악화로 당국의 묵인하에 다시 활성화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주민들뿐만 아니  
라 이를 감독해야 할 보위부원, 심지어 군당비서까지도 불법적인 개인 농사를  
지을 정도로 땀기밭의 경작이 확산되었다. 출처: 통일부. 북한정부포털: 북한테마  
-사전-북한지식사전(2021).

<<https://nkinfo.unikorea.go.kr/nkp/term/viewNkKnwldgDicary.do?pageIndex=1&dicaryId=75>>.

알록달록한 세상에 감탄하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 보위부에 끌려갈까 봐 긴장하는 기대의 모습 등은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고통의 기억의 단면들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드러난 이러한 고통의 기억들은 북한 체제의 고발 혹은 탈북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기 이전에 탈북 아동이 살아간 삶에 대한 기억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있는 탈북 아동은 이러한 아픔을 딛고 우리 곁에 왔다. 이러한 아픔이 있는 이들이기에 탈북 아동은 더욱 소중한 존재들이다.

#### 나. 이주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

북한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간 후에도 ‘불법적으로 경계를 넘은’ 댓가는 지속된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제도는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탈북 과정은 북한의 국경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까지의 모든 일정을 포함한다. 많은 수의 탈북자가 택하는 경로 중의 하나가 중국, 미얀마,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으로 오는 루트이다. 이들 나라에서 탈북민들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안전한 나라로 이동해야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에는 이주 과정에서의 아픔의 기억이 그려져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고통의 장면들은 사실적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 내용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게 기술되거나 그 기억에 대한 인물의 정서를 중심으로 기록된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개구리 울음 소리》, 《난민 소녀 리도희》에 형상화된 ‘이주 과정에서의 생존의 위협’에 대한 기

억을 살펴보겠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은 주인공 민철이 북한을 탈출할 때와 중국에 숨어 있던 시절의 아픔에 대해 두 기간을 분산하여 독자에게 보여준다. 민철이 경험한 아픔의 시간은 민철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지만, 작품에 흐르는 밝은 분위기를 덜 방해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기획일 것이다.

민철이 두만강을 건너는 부분을 회상한 장면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지닌 밝은 분위기와 대조적이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의 바탕에 글씨를 넣은 그림책과 같은 효과를 통해 ‘굵고 세찬 빗줄기’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칠흙같은 어둠’을 표현함으로써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 민철과 민철 어머니의 심리를 잘 드러낸다.

굵고 세찬 빗줄기가 아프게 얼굴을 때리는 밤이었다. 감시가 소홀한 날을 택한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쿵쿵 흐르는 물소리는 공포 그 자체였다.

브로커는 두만강 감시원에게 뇌물을 주기는 했지만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겁을 줬다. 엄마는 나를 업고 브로커 아저씨 도움을 받으며 강을 건넜다. 장마철이라 강물은 내 키를 훨씬 웃돌았고 물살은 금방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듯 사나웠다. 두려움에 부들부들 떠는 엄마의 떨림이 고스란히 내게도 전해졌다. (56-57쪽).

위의 인용문에서는 민철이 겪은 공포의 월경 경험은 충분히 전달된다. 아이를 업은 채 장마철 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안전을 생각한다면 보통의 상황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죽음의 공포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공포보다 더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북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숨 막히는 공포를 경험한 탈북자들

은 중국 땅을 밟는데, 그곳에서의 삶도 너무나 비참하다. 이는 아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영양실조로 앓아누웠을 때였다. (중략) 밖에 나갔  
은 엄마가 시든 사과 반쪽과 통통 붉은 국수가락을 내밀었다. 사람들 눈을 피  
해 가며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온 것들이었다.

“어서 먹으라. 살아야지. 살아남아서 꼭 남쪽으로 가야 짬네.”  
엄마는 힘없이 누워 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23-24쪽).

공안에 붙잡히면 언제든지 복송될 수 있는 위험의 땅인 그곳에서 탈북  
자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신분인 호모 사케르로 살아간다. 국경  
을 넘은 그들은 국적없는 난민이요 도망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탈북 과정 중에 생긴 아픔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삶에 드  
러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외부적인 부딪힘 등의 환경에서 현재화되기  
때문이다. 《난민 소녀 리도희》의 다음 장면은 도희가 엄마를 찾기 위해  
방송팀과 연결에 왔을 때 떠올린 기억과 캐나다 스톤 계곡의 폭포를 볼  
때의 장면으로 과거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연길에서의 삶은 짐승의 시간이었다. (중략)

외눈박이 영감은 들일을 나갈 때 꼭 엄마를 데리고 갔다. 나한테는 빨래, 설  
거지, 집 치우기 같은 집안일을 잔뜩 시켰다. (중략) 엄마를 찾아 들로 나섰  
다. 거기서 나는 보지 말았어야 할,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될 꼴을 보고 말았다. 너  
무 놀라고 무서워 나도 모르게 미친 듯이 집으로 내달렸다. (124-125쪽).

하늘에서 떨어지나 싶게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신기하면서도  
무서웠다. 폭포수가 내리치는 물웅덩이는 꽤 깊어 보였다. 그곳에 연어 떼가  
모여 산다고 했다. 넘실거리는 물줄기를 보자 두만강을 건널 때 느꼈던 공포가  
생각나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45쪽).



도희는 방송팀과 함께 이동하는 동안 예전 연길에서의 삶과는 확연히 다른 안정감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연길이라는 공간은 도희 스스로 뽕뽕 묻어 두었던 악몽을 떠오르게 했다. 도희가 연길에 오기 전, 캐나다 스톤 계곡의 폭포를 보며 두만강을 건널 때 느꼈던 공포를 떠올리며 소름이 돋은 것도 마찬가지다. 트라우마 없이 스톤 계곡을 보았을 때는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이었지만, 과거의 아픔이 기억나는 순간 파란빛의 아름다운 스톤계곡이 공포로 변신하였다.

《개구리 울음소리》에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선일의 모습이 나온다. 어느 날 창체 시간에 학교 폭력에 대한 수업을 하러 경찰관이 왔다. 그러나 선일에게 경찰은 중국 공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선일은 경찰관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창문에서 뛰어내려 다치게 된다. 이는 선일이 중국에서 공안을 피하러 도망 다녔던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 일어난 것이다. 《개성빵》의 기태는 아버지의 다리가 악어에게 물리는 악몽을 자주 꾸는데, 이것은 실제로 기태가 탈북 과정 중 메콩강을 건널 때, 기태 일행 중 한 명이 악어에게 물려 다리를 잃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픔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어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탈북 아동의 꿈으로 형상화되기도 하는데, 트라우마는 탈북 아동의 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다. 경계인의 사회적 타자화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를 넘은 탈북 아동이 도착한 대한민국은 그들이 살던 곳과 많은 것이 다르다. 같은 언어를 쓰는 줄 알았지만 다른 단어가 너무나 많고,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탈북 아동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선입견을 깨고 그들 무리 속에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탈북 아동은 그들이 정착한 사회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북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고국에 대한 정체성의 발현에 기인하기도 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타자화하는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때문이기도 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유 없이 타자화의 시선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탈북 아동의 모습이 아픔의 기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경계인이 사회적 타자화’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드러난 아픔의 기억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는 근래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탈북 과정보다는 탈북 후 정착 과정에 대한 서사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탈북 아동이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재 진형형의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드러난 탈북 아동에 대한 타자화는 주류 구성원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와 탈북 아동 스스로 체감하는 경계에 의한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의 경우 의도적인 비난과 놀림을 포함하는 적극적 타자화와 다름에 대한 기존 사회 구성원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소극적 타자화가 존재한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는 자신이 경계인임을 인지한 탈북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타자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타자화는 탈북 아동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면서 탈북 아동의 정착에 심각한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4>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는 요인

외부적 요인	적극적 타자화	놀림, 비난의 말과 행동
	소극적 타자화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말과 행동. 주로 탈북 아동의 배경, 그의 삶 등에 대한 무지로 인한.
내부적 요인		자신이 경계인임을 인지한 탈북 아동이 자기 스스로를 타자화함.

탈북 아동에 대한 타자화의 시선을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개구리 울음 소리》, 《난민 소녀 리도희》, 《열두 살의 모자이크》, 《개성빵》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다음 장면을 보자.

“너희들 들었니? 어제 간첩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글썽 탈북자였대.”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형주였다.  
 “정말? 우리 반에도 있잖아, 탈북자.”  
 형주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동우가 말했다.  
 “그러니까. 간첩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돼.”  
 형주는 나보고 들으라는 듯 큰소리로 비아냥대며 지나쳤다. (88쪽).

민철의 반 아이들은 간첩이 탈북자였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우리반 탈북자도 간첩일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를 구성하였다. 인지 구조가 불완전한 아동은 이러한 오류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큰 소리로 비아냥대며 지나치는 형주의 태도를 보면 이는 단순하게 미완성된 인지 구조에 의한 오류가 아닌, 의도적인 비난이라고 할 수 있다. 형주는 민철이 간첩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첩일 수 있어. 아니면

말고.’ 라는 시선으로 민철을 타자화하고 있다. 《개구리 울음 소리》의 다음 장면도 선일이 친구들로부터 받은 타자화의 시선을 아파하는 장면이다.

여자아이들은 모두 선일과 짝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체육 선생님이 부반장인 나은을 불러내 억지로 선일과 짝이 되게 하셨어요. (중략) 그러나 나은은 체육 시간이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손을 씻고 왔습니다. 선일이 더럽다고요. (중략) / 선일은 자신이 더러운지 온몸을 살펴봅니다. 매일 이렇게 씻으니 더러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선일’ 하면 ‘더럽다’ 고 몰아붙입니다. 나은의 동그란 눈두덩과 연분홍 스웨터, 보드라운 팔을 상기하자 공연히 울음이 치솟았습니다. (43-45쪽).

선일의 친구들은 선일이 더러운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일이는 더럽다.’ 라는 명제를 참으로 놓고 선일을 타자화하고 있다. 선일은 적극적 타자화로 인한 이유 없는 차별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민을 배신자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적극적 타자화에 해당한다. 《난민 소녀 리도희》에서 도희의 담임 선생님은 통일교육 지정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희가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말해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아이들 앞에 선 날, 도희는 학생들로부터 ‘북한의 배신자’ 라는 말을 듣게 된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강단으로 올라가려는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렸다.

“재 북한의 배신자 아냐?”

옆의 친구를 꼭 찌르며 맨 앞줄에 앉은 남학생이 말했다. (중략)

어이없어 하는 아이들의 눈총을 받고, 사회 보는 선생님께 혼나고, 담임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어떻게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다. 머릿속에는 ‘배신자’ 라는 단어만 남았다. (107쪽).

탈북 아동을 북한의 배신자라고 말하는 이는 탈북 아동을 자신이 속한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는 탈북 아동이 대한민국 구성원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다. ‘머릿속에는 배신자라는 단어만 남았다’는 도희의 독백은 도희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열두 살의 모자이크》에도 제나를 적극적으로 타자화하는 학급 친구들이 등장한다. 제나는 탈북한 엄마가 중국에 숨어 살 때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제나는 그러한 신분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물함 앞에 떨어진 돈을 집어 올린 제나에게 다가온 은지가 “내가 모를 줄 알아? 도둑년. 너 북한 애라며?”라고 속삭인다. 화가 난 제나는 무작정 교실을 나와 방향했고, 그날 제나가 탈북 아동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다음 날 길에서 만난 헤리로부터 들은 ‘누더기’라는 말은 제나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송제나, 애는 뭐랄까…….”

상우가 턱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하자 헤리가 픽 웃더니 속삭였다. 그런데 상우한테만 한 소리가 얼핏 들렸다. 확실치 않지만 제나가 듣기에는 그랬다.

“누더기.”

얼굴이 화끈했다. / 당장 주먹이 움직였다. 그러나 두 아이는 이미 제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미나가 제나의 주먹을 꼭 붙들고 있었다. (57쪽).

‘누더기’ 소리를 들은 제나의 반응은 놀랍다. ‘얼굴이 화끈’ 했고 미나가 잡고 있어서 사용은 못 했지만 ‘당장 주먹이 움직였다.’ 그리고 지속되는 제나의 마음에 대한 묘사는 제나를 경계인으로 몰아가는 아이들의 무절제한 말들로 인해 제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제나를 향한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은 당당한 제나를 눈치 보는 아이로 바꾸어 버렸다.

이 외에도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탈북 아동의 다름에 대한 무지로 인해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는 장면들이 있다. 이는 외부적 요인이기는 하지만 탈북민을 향한 의도적인 비난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극적 타자화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다음 장면은 소극적 타자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형주가 힘주어 내 무릎을 내리찍었다. 나는 재빨리 피하며 어깨로 형주의 얼굴을 밀었다. 순간 형주가 비틀거렸다.

‘이때다.’

나는 비틀대는 형주의 넓적다리를 들이받았다. 형주가 꺾당 나자빠졌다. 응원으로 시끄럽던 교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뭘야 반칙이잖아.”

침묵을 깨고 동우가 소리쳤다.

“치사해.”

“왜 반칙을 하고 그래?”

아이들도 비난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확 퍼졌다. (20-21쪽).

민철은 닭싸움에서 자신이 살던 무산의 규칙을 적용하여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그런데 친구들의 규칙은 민철이 한 것과 달랐고, 친구들은 민철에게 반칙이라고 이야기한다. 친구들은 민철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였지만, 민철은 이를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규칙이 친구들과 다름을 인지한 민철은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강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나름 정당당당하게 싸운 것이 반칙으로 규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린 민철

이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친구들의 비난은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비난이다.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비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철이 아이들은 말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꼈다. 아이들이 만약 민철이가 인지하는 규칙이 자신들과 달라서 그랬다는 것을 알았다면 민철이에게 비난을 퍼붓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아이들은 민철이가 북한에서 왔고 북한의 놀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규칙을 제대로 알지 못한 민철을 배려하지 못한 민철이 친구들의 모습은 소극적 타자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의 시선을 드러내기도 한다.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란 탈북 아동 스스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경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체감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 아동은 부끄러움, 좌절, 포기, 분노 등의 감정을 경험한다. 다음 글도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한 장면이다.

학교에서도 영어 학원에서도 아이들은 웃는데 나만 못 웃을 때가 많다. 지금처럼 그것이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을 몰라서다. 언제쯤 그들과 같이 눈물 나도록 웃을 수 있을까? (69쪽, 밑줄-연구자).

민철의 엄마를 좋아하는 세호 아저씨가 민철에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로봇트 태권브이가 나타난다는 농담을 하였지만, 민철은 로봇트태권브이가 뭔지 몰라서 웃지 못했다. 그리고 민철은 영어학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많았음을 생각하며 속상해한다. 세호 아저씨도, 영어학원의 아이들도 민철에게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다름’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민철은 타자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개성빵》의 기태도 소극적 타자화의 시선을 경험한다.

기태는 항상 준비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주눅부터 들었다.

“어제 말한 찰흙을 (오늘) 무슨 수로 구하니? 미리 말해줬어야 찰흙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케 오지. 오늘은 그냥 가. 어제 말했으면 다른 애들도 가져올 수 없을 거야.” (중략)

기태는 짝궁에게 찰흙을 어디서 구했느냐고 묻고 싶어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조선말이 튀어나오면 아이들이 또 놀려댈 게 뻔했다.

(22-23쪽, 괄호 및 밑줄-연구자).

찰흙을 땅에서 펴와야 하는 줄 알고 미술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한 기태는 아이들이 찰흙을 어디서 구해왔는지 물어볼 수조차 없었다. 자신만 모르고 있다는 부끄러움과 북한말을 구사하는 자신의 모습은 기태를 이 중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태를 소극적 타자화에 내몬다.

《열두 살의 모자이크》의 제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타자화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해 소극적 타자화가 발현되면 그것은 탈북 아동의 내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어 탈북 아동을 깊이 좌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아무 말이나 튀어나오는 입을 아주 께매 버리고 싶었다. 교실에 와서도 별링 거리는 심장이 가라앉지 않았다. / 가슴 밑바닥이 아프게 굽히는 걸 참느라 공부 시간 내내 제나는 혼자 앓아야만 했다. / 반 애들이 보는 자신이 누더기라는 사실에 수치스러웠다. / 온종일 애들 눈치를 보았다. / 제나는 내내 험리를 살폈다. / 북한 애도 중국 애도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건 더 끔찍하다.

(58-61쪽 부분 발췌, 밑줄-연구자).

밑줄 친 부분은 평소 아주 씩씩한 아이였던 제나가, 한 번의 적극적인 타자화로 인해 움츠러들면서 점점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강도가 깊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자신이 탈북 아동도, 중국인도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 알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길까 봐 제나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때로 적극적 타자화와 소극적 타자화가 동시에 발현되기도 하는데, 한 상황에서 동시에 발현되는 두 타자화의 시선은 탈북 아동을 더욱 힘들게 한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다음 장면은 적극적 타자화와 소극적 타자화가 한 상황에서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마지막 우리 모두 차례가 되었다. 가슴이 쿵쿵 뛰고 입안에 침이 바짝바짝 말랐다. 며칠 전부터 발음과 억양을 연습했지만 긴장이 된 탓이었다.

나는 준비한 지도에 광물이 나는 지역을 표시하며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북한은 전 국토의 80%에 광물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중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광물은 200여 종이나 됩니다.” (중략)

① “지하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리 못살아요?”

형주가 손을 들더니 탄지를 걸었다.

② “맞아요. 팔아서 잘 먹고 잘살면 되잖아요.”

③ “그럼 탈북자도 없을 텐데 말이야.”

다른 아이들까지 형주 말을 거들며 웅성거렸다. 아이들 말이 가시가 되어 내 가슴에 콧콧 박혔다. (91-94쪽, 번호 및 밑줄-연구자).

①번의 질문은 민철의 발표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생긴 의문으로 의도적인 비난은 담겨 있지 않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여 민철과 앙금이 있는 형주가 ②번의 말로 민철을 곤란하게 한다. 형주의 말에는 ‘지하자원 팔아서 잘 먹고 잘살았다면 탈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③에서 보듯, 이러한 형주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함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아이들 말의 시작은 소극적이었지만 점점 적극적인 비난이 되어가며 민철의 가슴에 ‘가시가 되어 콧콧 박혔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의 시선과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는 탈북

아동 스스로 자신이 경계인임을 인지하게 한다. 또한 타자화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민철의 친구 지혜는 타자화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의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간다. 이 역시 외부적 요인의 타자화가 내부적 요인의 타자화까지 이어진 것을 보여준다.

지혜는 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탈북자인 것을 알면 친구들이 놀리고 왕따를 시킨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다행히 지혜는 아기 때 와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북한 사람인 것을 몰랐다.

“일부러 탈북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 우리 부모님은 말투 때문에 들통날까 봐 체육 대회나 참관 수업 때에도 학교에 안 와. 하지만 나는 가끔 거짓말이 드러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 꿈을 꾸기도 해. 그럴 때는 정말 무서워.” (103쪽).

어느 날 갑자기 지혜는 민철에게 자신이 탈북 아동이라고 털어놓는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꿈을 꾸며 무섭다고 하는 지혜의 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북민을 향한 타자화의 시선으로 인해 탈북 아동이 스스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탈북 아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그들 모습 자체로 받아주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탈북 아동에 대한 타자화의 시선은 탈북 아동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무기나 다름없다. 《북녘 친구 남녘 동무》에서 전교 어린이 회장 후보로 출마한 북한 출신 영석이의 벽보가 찢어진 장면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북민의 타자화의 시선을 보여준다.

영석이의 아버지는 통일이 되기 전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중략) 복도로 들어서던 광철이는 전교 어린이 회장 후보들의 벽보가 붙어 있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순간 광철이는 제 눈을 의심했다. 영석이의 얼굴이 실린 벽보가 심하게 찢겨 너털거렸기 때문이다. 누군가 고의로 그런 것이 틀림없었다. (19쪽).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와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의 장면들은 탈북 아동이 낯선 환경에서 정착하면서 겪는 아픔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계를 그어 버리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사회에서 구별되어 섞이지 못하는 경계인의 위상을 가진 탈북 아동의 아픔을 드러낸다.

이러한 선입견과 차별은 탈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시선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죽음을 무릅쓰고 살기 위해 정착한 이곳에서 그들이 죽음을 넘나드는 공포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을 얼마나 견뎌내고 있는지에 관한 탈북자들이 기억을 드러낸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고통의 기억들이 탈북 아동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음에 대한 우려를 표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분노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고착화 이전에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아픔의 기억을 드러내는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아픔을 형상화하는 것은 아픔의 기억 형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을 통해 독자는 탈북 아동과 탈북민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된다. 탈북 아동은 고국을 떠나 탈주하는 경험을 가진 디아스포라이다. 국경을

넘는 경험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탈북 아동은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들은 북한 출생으로서 대한민국에 살아감으로써 혼종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독자에게 이중적 정체성을 지니며 탈주의 아픔을 경험한 탈북 아동의 존재적 특성을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을 통해 독자는 탈북 아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탈북 아동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비난하거나 놀리는 인물로 인해 좌절, 분노, 상실감 등을 경험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타자화의 시선과 유형들을 통해 독자는 이웃으로 존재하는 탈북 아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탈북과 이주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 존재인 탈북 아동은 탈북 아동은 그들이 모국에서부터 지녔던 정체성을 버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동화’ 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정받으며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독자에게 이러한 아픔을 지닌 탈북 아동의 존재를 알리면서 독자가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요청한다. 독자가 이들에 대한 존재적 이해를 가질 때, 탈북 아동에게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의미있게 다가올 것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아픔의 기억은 독자에게 탈북 아동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태도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독자들이 많아질 때 탈북 아동이 받은 사회적 타자화로 인한 아픔들이 아물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결국 탈북 소재 아픔이 기억을 형상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아동이 하나 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 2. 그리움의 기억

탈북 아동은 자신의 고국을 떠나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로서 그리움의 기억을 안고 살아간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다. 또한 탈북의 과정은 생명을 담보한 험난한 과정으로 탈북의 과정에서 탈북 아동은 가족 이산의 경험을 겪기도 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은 탈북 아동이 정착한 사회에서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 소환되기도 하고, 여러 정서가 복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탈북 아동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존재이다. 탈북 아동이 자신들의 고국인 북한을 그리워하는 것은 ‘타자화의 시선’이 원인이기 이전에 그들의 본성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이 되는 매개체가 다양하게 존재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이 형상화되는 양상도 다양하다. 여기서는 〈자그사니〉,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북녘 친구 남녘 동무》를 중심으로 그리움의 기억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그사니〉에 등장하는 ‘자그사니’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 강에 사는 민물고기의 이름으로 강희가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매개체이다. 학교를 자퇴한 주인공 강희는 수족관에서 일하다가 수족관 사장님이 직접 훈춘에서 조달해 온 자그사니를 만나게 된다. 강희는 북한에 살 때 자그사니를 많이 잡아먹었다. 자그사니는 강희에게 있어 고향 친구처럼 친근하기도 하고, 자신처럼 고향을 나와 살아가는 측은한 존재이기도 하다.

강희는 고향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북에서는 너무 흔해서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던 고기가 남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다. ‘내래 이 땅에서 거지 취급받으며 살고 있는데…… 너는 나보다 낫네.’

(125-126쪽).

“너도 나처럼 물갈이를 심하게 하는구나.”

‘죽으면 안 돼. 나도 사는데 편하게 온 네가 왜 죽어?’ (135쪽).

강희는 자신의 고향에서 온 자그사니가 반갑기도 하고 귀한 대접을 받는 것에 대해 씁쓸하기도 하는 등 자그사니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낸다. 자그사니에 대한 강희의 복잡한 감정은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강희의 복잡한 마음을 투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마음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기인한다.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민철은 북한에서의 기억을 수시로 떠올린다. 학교 공부 중에 등장한 ‘전쟁’이라는 단어, 감기에 걸리게 한 ‘밤바람’, 엄마의 ‘신발’ 등 민철의 삶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자꾸 북한에서 지냈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남산타워에서 63빌딩으로 전파가 쏘져.”

전쟁이라는 말에 북한에서 받던 전투 훈련이 떠올랐다. 그 훈련을 받을 때는 나보다 어린 동생들도 모형 총을 들고 맨땅에서 뒹굴어야 했다. (68쪽).

어젯밤 밤바람을 쐬어서 탈이 난 것 같았다. 무산에서는 얇은 옷으로 겨울을 나도 끄떡없었는데 그깟 밤바람 좀 쐬었다고 감기에 걸리다니 마음처럼 몸도 변해 가나 보다. (70쪽).

문득문득 소환되는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들로 민철은 그 시절을 추억한다. 이 동화에서 민철이 ‘어린 시절이 그립다’ 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독백처럼 기술된 북한에서의 삶에 대한 회상은 민철이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통일 한국을 배경으로 한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에는 작품 속 인물들이 그리워하던 고향을 찾은 장면이 등장한다.

“와! 엄마 중국 장마당으로 장사하러 나가고 허기질 때, 누나가 해 주던 돌미나리 부추전 생각난다. 다시 그 맛을 보게 해 준다고? 완전 기대되는데! 누나 손맛 끝내주잖아.” (97쪽).

“우린 조국을 배신했던 게 아니야. 살기 위해 고향을 잠시 떠났던 거지. 단 한 번도 고향을 잊은 적 없어. 그래서 통일되자마자 달려온 거고. 이렇게 돌미나리전 하나만으로 고향의 맛을 만끽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그리웠기 때문일 거야.” (101쪽).

통일 열차를 타고 청진으로 간 정혁과 수진은 돌미나리전 하나만으로도 고향의 맛을 만끽한다. 이 장면은 북한이 고향인 정혁 남매가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은 박경희 작가의 가장 최근 작품이다. 박경희 작가는 음식으로 작중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그리움을 많이 표현하는데,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 배경을 가진 이 작품도 예외가 아니다. 백두산을 함께 여행하는 일행들이 들어간 북한 음식점의 메뉴판은 탈북민의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한다. 풍풍떡, 꼬장떡, 평양냉면, 바스레기 두부탕, 돼지 내포탕, 짜장면, 농마 국수 등 그 메뉴도 다양하다.

《북녘 친구 남녘 동무》도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의 배경을 가진 작품

이다. 영석의 아버지는 신의주가 고향인데, 영석의 가족은 통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 명절에 고향인 신의주에 방문한다. 아래의 두 장면에는 고향에 온 영석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다.

<1> 차례를 지내고 영석이네 가족은 경의선 열차를 타기 위해 용산으로 갔다. (중략) 서울에서 아버지의 고향인 신의주까지는 두 시간 거리에 불과했다. (중략) 얼마쯤 달렸을까. 기차가 신의주역에 들어서고, 종착역 도착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는데도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는 깊은 상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여기가 신의주래요.”

“어? 그...그래.”

아버지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로 번질거렸다.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작은아버지의 눈자위도 별걸개 상기되었다. (81-82쪽, 밑줄-연구자).

<2> 열려 있는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다. ‘옛날 찹쌀 순대’ 라는 간판이 붙은 음식점이었다. (중략)

“와아, 정말 맛있다.”

영일리와 정미도 짹짹 소리를 내며 찹쌀 순대를 먹었다. 모두 정신없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괴상한 신음을 토해 냈다.

“으허헛!”

아버지가 드디어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허...형님!” (87-88쪽, 밑줄-연구자).

통일이라는 가상의 시간은 작중 탈북민을 실제로는 갈 수 없는 고향에 옮겨 놓았다. 영석의 가족과 작은아버지의 가족은 함께 신의주를 방문했다. 기차가 신의주역에 들어섰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통일되기 전까지 갈 수 없었던 고향



이라는 공간에 온 감격일 뿐만 아니라, 고향 땅에 실제로 발을 디디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리움 때문일 것이다. 신의주에서 식당을 찾아 들어간 <2>번 장면에서 영석의 아버지가 내뿜는 신음 소리는 그동안 지니고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소리다. 그것은 감격의 소리이면서 그동안 쌓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를 나타내는 소리이다. 이 작품은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영석의 아버지 형제와 다른 가족의 감정 표출의 대비를 통해 탈북민이 가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기억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 나. 가족을 향한 그리움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가족 이산의 경험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그려진다. 때로 먼저 탈북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탈북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개구리 울음 소리》,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개성빵》을 중심으로 그리움의 기억을 살펴보겠다.

《개구리 울음소리》에서 선일이 가족의 기억을 소환하게 되는 매개체는 들판의 개구리알과 동생이 나오는 동요이다. 이러한 그리움의 기억이 소환되는 장면을 보다 자세하게 그린 부분은 탈북 아동의 복합적인 정서가 함께 담겨지는데, 그 복합적인 정서는 때로 불안정한 정서로 표출되기도 한다.

엄마는 동생을 업은 채 끌려가면서도 우리 쪽을 향해 “어서 가!”, “어서 도망쳐!” 라고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거칠고 이상했어요. (중략)  
‘처절하다’ 는 단어를 배웠는데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꼭 그랬습니다. (중략) 그

(경비병)가 사라지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습니다.

(96-98쪽, 팔호-편집자).

선일은 웅덩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물을 바짝 들여다봅니다. 붉은 젤리를 한 움큼씩 쏟아놓은 것 같은……. 아, 그것은 개구리 알이었습니대!

“이곳에도 개구리들이 이렇게 많구나! 개구리들이 벌써 알을 낳았구나!”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엄마의 등에는 아기가 업혀 있습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울컥, 엄마가 보고 싶습니다. 동생도 보고 싶습니다. (59쪽).

선일은 북에 두고 온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어린 금혁이 고물고물한 손으로 옥수수를 쥐고 하모니카 부는 모습을 연상하자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중략) 울컥하는 감정이 가슴에서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양가슴이 아리고 쓰라렸습니다. 코끝이 찡해져서 선일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80쪽, 밀줄-연구자).

선일의 모습은 그리움의 기억이 담고 있는 복합적인 정서를 보여준다. 동생을 업고 있던 선일의 엄마는 탈북 과정 중 국경수비대에 걸려 북으로 송환되었다. 선일은 엄마와 동생을 떠올리면 ‘가슴이 따뜻하고 흐뭇하다’. 그리고 귀여운 동생 생각에 ‘웃음’ 짓기도 한다. 그러나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을 인지할 때 선일은 ‘울컥할 수밖에 없다’.

아빠를 그리워하는 민철의 마음이 담긴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의 다음 장면에도 민철이의 복합적인 정서가 그려져 있다. 이유도 모르고 떼를 쓰는 민철의 모습은 엄마를 생각하며 힘든 것도 참아내는 듩직한 민철의 모습과 대조된다.

아빠가 보고 싶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다. (중략) 아빠 생각을 할수록 가슴이 빠근하게 아파왔다. 다른 도화지에 무산 친구도 그랬다. (중략)

이상했다. 남한에 와서는 배부르게 먹는데도 속은 늘 허전했다. (중략)

“엄마, 나 속도전 떡.”

속도전 떡이라도 먹어야 허우룩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았다. (중략)

“몰라! 아빠도 보고 싶고, 무산 친구도 보고 싶고, 속도전 떡도 먹고 싶어.  
속도전 떡 해 줘!”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질렀다.

(58-60쪽, 밑줄-연구자).

민철은 엄마가 걱정하는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이 화나는 것도 참을 줄 아는 아이지만, 아빠가 보고 싶을 때면 자신도 모르게 속도전 떡을 해달라고 떼를 쓴다. 속도전 떡을 만들기 위한 옥수수 가루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철은 울고 싶지만 ‘눈물을 참고 소리를 친다’. 이러한 탈북 아동의 정서적 불안은 독자로 하여금 탈북 아동이 가진 그리움의 정도가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민철의 표현처럼 ‘가슴이 빠근하게 아플’ 정도의 그리움이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리움이다.

《개성빵》에서 기태, 동생 기욱이, 그리고 기태의 엄마는 탈북의 과정 중에 있는 아빠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작품에 형상화된 그리움은 곧 만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점에서 위의 세 작품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기태 가족의 정서 역시 복잡적이다. 그것은 아빠와의 만남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탈북의 과정을 이미 경험한 기태의 가족은, 아빠와 할머니가 겪어야 할 위험한 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기태의 가족이 가진 그리움은 염려와 불안, 감동과 기대가 섞인 복합적인 정서이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는지 엄마가 울먹이며(감사와 감격) 연신 고개를 끄덕

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끊긴 것 같았다. (중략) 엄마가 오른쪽 귀에 댄던 전화를 왼쪽으로 옮기며 안타까워했다.(안타까움) (중략) 엄마가 기타와 기옥이를 끌어안았다. 기타는 엄마의 가슴에서 심장소리가 크게 들리는 걸 느꼈다.(기대와 걱정) (중략) 아버지는 언제 노동교양소에서 나왔을까.(궁금함) (중략) 너무 살이 내려 바람에 날아가지나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버지는 뼈만 앙상했었다. (중략) 엄마는 아버지의 전화가 걸려 오기 전까지는 혼자서 멍할 때가 많았다.(기대와 무기력함) (중략) 한 달이 지나도록 브로커는 아무 소식이 없었다. (중략) 식구들은 손전화만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잠이 들곤 했다.(무기력함) (10-15쪽, 밑줄 및 괄호-연구자).

아빠를 기다리는 기타 가족의 그리움의 기억을 드러내는 위의 인용문에는 매우 다양한 정서가 드러난다. 전화를 받을 땐 살아있음에 ‘감사’ 하여 ‘감격’ 하고, 예고도 없이 끊어지는 전화는 ‘안타까움’ 을 자아내고, 그리운 남편을 만나는 일에 대한 ‘기대’ 는 심장이 크게 들릴 만큼 ‘기대와 걱정’ 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기타의 가족은 전화를<sup>83</sup>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움을 지니고 있다. 기타의 가족이 아빠에 대해 가지는 그리움의 기억은 감사, 감격, 안타까움, 기대, 걱정, 무기력함 등 복합적인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의 불법적인 경계 넘기의 과정으로 인해 파생된 탈북 아동 및 탈북민 가족의 이산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가족의 이산은 그리움의 기억으로 형상화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그리움의 기억은 탈북 아동과 그 가족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낸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그리움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그리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탈북 아동에 대한 존재적 이해를 요청함과 동시에 탈북 아동이 가진 통일에의 간절한 소망을 탈북 아동과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디아스포라로서의 탈북 아동은 월경과 탈주의 경험으로 인해 아픔을 지닌 존재인 동시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디아스포라인 탈북 아동이 지닌 그리움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에게 탈북 아동의 존재적 이해를 요청한다. 탈북 아동은 고향과 닮은 공간에 있을 때, 고향에서 보던 대상을 만날 때,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대할 때 등 수많은 상황과 매개체에 의해 그리움의 기억을 소환한다. 작품 분석에서 이미 다룬 바와 같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올 때 탈북 아동은 불안정한 정서를 표출하기도 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그리움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탈북 아동의 존재적 이해를 요청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그리움의 기억이 형상화된 이유 두 번째는 독자가 탈북 아동이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함으로써 탈북 아동이 가진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 또한 공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통일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인 개념이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다. 대한민국 아동과 북한의 아동은 주로 학교 교육 또는 매체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그러나 탈북을 경험하는 순간, 탈북 아동에게 통일은 매우 구체적인 개념으로 다가온다. 탈북의 과정에서 가족과의 이산의 경험한 탈북 아동의 경우 통일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간절하다. 수많은 탈북민들이 혼자 탈북하거나 일부의 가족과 함께 탈북한다. 일부의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탈북을 도와 그들이 정착한 국가에서 재회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가족과 이별의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통일은 탈북 아동이 가진 그리움의 기억과 관계되어 탈북 아동의 삶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통해 탈북 아동이 가진 그리움의 깊이를 이해하는 독자라면, 탈북 아동이 얼마나 간절하게 통일을 소망하고 있는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그리움의 기억은 독자에게 탈북 아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청한다. 탈북 아동이 가진 그리움에 깊이 공감하는 독자는 탈북 아동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탈북 아동과 공유할 수 있다. 탈북 아동에 대한 존재적 이해와 공감,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간절함의 공유는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아동을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3. 희망의 기억

탈북 소재 아동 문학에는 탈북민과 대한민국 구성원 공통의 희망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희망의 기억은 민족의 하나 됨을 바라는 통일에의 염원과, 이주 과정의 생존과 정착 국가에서의 뿌리내림을 포함하는 정체성의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일은 탈북민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통일이라는 시간은 탈북민이 가진 고통의 기억들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은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북한 국민 모두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통일에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주 과정의 생존을 포함하여 정착 국가에서의 뿌리

내리는 전 과정을 통해 고통을 딛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겪는 사회적 타자화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이 아닌,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를 극복하는 희망의 기억을 담고 있다.

### 가. 통일에 대한 염원

탈북민들은 먼저 온 미래이다. 그들이 가지고 온 아픔의 기억은 통일 후 우리가 만날 북한 주민의 아픔일 것이며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하는 아픔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이 경험할 수도 있는 아픔일 것이다. 그들이 온갖 기억을 꺼내 문학작품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들이 통일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희망의 기억으로 통일에의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 통일에의 염원은 《개구리 울음 소리》, 《리루다의 통일밧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구리 울음소리》의 마지막 장에서 아이들은 여름방학 캠프를 맞이한다. 캠프의 마지막 행사는 종이 등에 소원을 쓴 후 날리는 것이었다. 작품은 서술자의 관점에서 선일의 소원을 담담하게 서술한다.

선일은 엄마와 동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엄마와 동생이 남한으로 오게 해달라고도 썼습니다. 동생이 오면 업어주고 돌봐주고 평생 단 한 번도 절대로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동생이 처형되지 않았기를,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중략)

선일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불붙일 때 잘못해서 등의 몸체가 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떠오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조바심을 친 나머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면서 선일의 등에 불을 잘 붙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눈짓을 하셨고, 선일은 등을 휘익 떠밀어 위로 날렸습니다.  
선일의 등은 커다란 꽃봉오리가 되어 검은 하늘로 빨갱게 날아갔습니다.

(101-102쪽).

선일의 등에는 선일의 소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일과 같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수많은 탈북자들의 소원이 함께 담겨 있다. 작품은 선일을 통해 탈북 아동이 가진 통일에의 간절한 소망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리루다네 통일 밥상》은 ‘환상촌’이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서사가 이루어지는데, 작가는 환상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환상촌! 이름만으로도 독특한 동네다.

오래된 성곽 밑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멀리서 보면 바닷가 바위에 붙은 따개비 같다. 대문은커녕, 허름한 사립문조차도 없는 집이 더 많다.

비 오는 날이면, 온 동네에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 먼저 부침개를 내놓는 집이 사랑방이 된다.

눈이 내리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골목을 쓴다. 삼살개들은 눈밭에서 뛰어놀고,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며 호호 손을 녹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칠 줄 모르는 눈을 쓰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플 즈음, 호호 할머니가 쥔 고구마를 내놓는다. 다 먹고 남은 고구마 반쪽도 서로 먹는 모습이 정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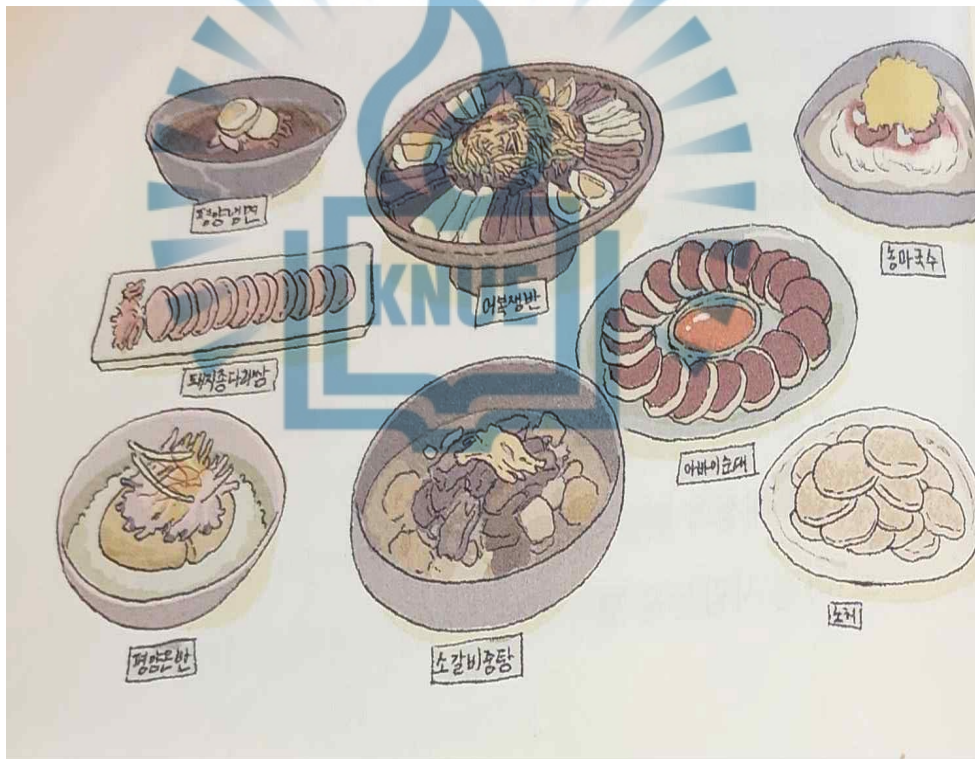
(9-10쪽).

환상촌은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환상촌은 환상적인 동네이다. 이 온 동네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환상촌이 환상적인 더 큰 이유는, 남과



북의 갈등이 풀어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환상촌은 남남북녀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온 이웃이 환영하고 함께 기뻐한다. 이곳은 루다의 새 동생이 된 대성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곳이고, 탈북하여 함께 살게 된 루다의 할머니가 주민들과 갈등을 풀고 정겹게 지내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남남북녀가 만나 결혼하는 장면인 첫 장면부터 루다의 가족이 통일전망대에 오르며 통일에 대한 꿈을 나누는 장면까지 온통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림 1] 루다 엄마와 대성 아빠의 결혼식에 준비된 북한 음식(18쪽).

남과 북의 음식이 어우러진 이 그림은 통일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루다의 엄마는 탈북 전 평양 옥류관 요리사였고 대성의 아빠는 지금 중국음식 요리사다. 둘은 결혼 피로연 음식을 직접 만들어 환상촌 식구들을 대접했다. [그림 2]에는 평양냉면, 어복쟁반, 돼지종다리쌈, 평양온반, 아바이순대, 농마국수 등 북한의 갖가지 음식이 등장한다. 이 외에도 이 작품에는 북한 음식이 매우 많이 나온다. 나중에 탈북하여 오신 루다 할머니 역시 출중한 요리 실력으로 루다와 대성의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 환상촌 식구들을 대접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그림과 함께 북한 음식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북한의 음식을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는 통일 사회에 대한 희망을 기억을 담고 있다.

희망의 기억은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이 작품에는 북한의 루다 할머니가 탈북 후 환상촌에서 거주하면서 주민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머니는 한 입, 두 입까지는 호기롭게 먹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맨손으로 입술을 쓰윽 닦더니, 원장님 앞으로 음식 접시를 밀었다.

“내래 입맛이 촌스러운가 봅네다. 입 안에 기름이 동동 굴러다니고, 단맛이 너무 세서 넘어가질 않습네다. 수수로 만든 것 맞습네까? 수수 고유의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말입네다.” (120-121쪽)

미용실 원장이 해 준 수수부꾸미를 드신 할머니는 음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하셨다. 통일을 소망하게 하는 북한 음식이지만, 확연히 다른 북한과 서울의 음식 맛으로 인해 루다 할머니와 환상촌 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이후로 두 사람은 누구 하나 질세라 티격태격 말싸움을 한다. 그 과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과정이다. 환상촌 주민은

할머니에게 “왜 여기를 왔냐” 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할머니는 애꿎은 대성을 혼낸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러한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내래 간식 좀 준비해 왔습네다. 지난번 원장님 마음 상하게 한 것 본의는 아니었습네다. 용서하시라요. 내래 가슴에 뭔가를 숨겨 놓질 못하는 성격입네다. 우리 대성이한테는 친할매나 다름없다던데 죄송함다. 제가 만든 음식인데 드시고 마음 푸시라요.” (163쪽).

할머니는 손수 만드신 노치와 조청을 가지고 미용실 원장을 찾았다. 그리고 미용실 원장은 할머니의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 둘의 갈등의 원인은 ‘다름’에 있었다. 서로 맛있다고 여기는 음식 맛이 달랐고, 음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갈등의 해결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통일의 시대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많은 갈등의 상황에 대해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작품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며 서로 다른 이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기억하고자 한다.

통일전망대로 나들이를 온 루다의 가족이 북녘땅을 바라보며 나누는 다음의 대화는 통일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루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음……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정말 소중한다는 걸 새삼 느꼈어. 지난번 청와대 앞을 걸으면서도 그렇고……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게 실감 나. 아까는 할머니 말처럼 윗동네에 있는 내 친구들이 얼어붙은 땅에서 살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아팠어.”

“어서 통일이 되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와야지. 코앞에 있는 땅을 이렇게 바라만 봐야 한다니.”

아빠가 연설가처럼 말하자, 엄마가 심오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환상촌 통일밥상 잘 키워서, 평양에 2호점 내는 게 소원이예요.”

“와야! 누나하고 내가 2호점 셰프할게요. 할머니 그때까지 맛있는 된장, 고추장 담가 주세요.”

“평양에 2호점 세운다는 말만으로도 두근거리요.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때, 겨울 철새떼가 훨훨 자유롭게 철조망 너머 하늘을 날았다.

“나도 누나가 살던 평양에 가 보고 싶다. 우리도 마음껏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지, 누나!” (207쪽).

평양에 루다네 식당 2호점을 내는 것을 상상하며 루다의 가족은 꿈에 부푼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철조망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철새 떼는 독자에게 남과 북이 자유롭게 오가는 통일 시대를 연상하게 한다. 이 작품은 갈등이 있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환상촌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의 기억을 담아내고 있다. 통일전망대로 나들이를 나온 루다 가족의 꿈에 부푼 대화를 통해 다시 강조하며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희망의 기억으로 형상화된다.

## 나. 정체성의 회복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주 과정의 생존을 포함하여 정착 국가에서의 뿌리내리는 전 과정을 통해 탈북 아동이 타자화의 시선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는 서사를 다루고 있다.

탈북 아동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력자의 역할은 매우 크다. 경계인의 위상을 가진 탈북 아동 스스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선생님이나 친구, 가족, 그 외 주변 인물 등을 조력자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인공의 심리, 조력자의 역할 등에 대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작품에 형상화된 정체성 회복에 관한 희망의 기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 1) 조력자의 도움

대부분의 작품에서 조력자는 선생님·친구 혹은 가족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여러 명의 조력자가 등장하는 작품도 있다(《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열두 살의 모자이크》). 다음은 본고의 대상 작품을 조력자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표 5〉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조력자 유형

조력자	대상 작품
선생님 · 친구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북녘 친구 남녘 동무》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열두 살의 모자이크》 《개구리 울음 소리》
가족	〈빨래〉 《리루다의 통일 밥상》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개성빵》
기타	《난민 소녀 리도희》 〈자그사니〉 《열두 살의 모자이크》

조력자가 ‘기타’의 범주에 있는 《난민 소녀 리도희》와 〈자그사니〉의 경우 조력자가 탈북 아동이 일하는 장소의 사장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자그사니〉는 강희가 가장 의지했던 애심 언니가 강희의 조

력자가 아니라 강희를 속이는 존재가 되는 마음 아픈 반전이 있다. 여기서 《열두 살의 모자이크》을 중심으로 작품에 형상화된 조력자의 도움을 살펴볼 것이다.

《열두 살의 모자이크》는 중도 입국자인 제나의 정체성 회복이 주된 내용으로, 제나의 조력자에는 가족, 친구, 그리고 외부 인물까지 포함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조력자는 탈북 아동이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을 극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 제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정체성의 회복의 과정에 대한 심리 묘사가 매우 세밀하게 표현된 이 작품에는 주인공이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 곳곳에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를 등장시킨다.

제나는 친구들의 놀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 엄마가 제나를 두고 이혼한 아빠에게 간 상황은 제나를 힘들게 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제나가 이런 상황을 스스로 탈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적극적 타자화에 의해 경계인으로 몰린 제나가 다시 학급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나를 돕는 인물이 꼭 필요하다. 그 첫 번째 조력자가 학급의 반장인 경민이다.

“그랬나? 난, 네가 시작한 이 장난이 좀 구려서 말이지.”

“뭐래니, 구려? 좀 쨌다. 너도 그런 말 쓰는구나.”

“써야 할 때는 써.”

“내가 시작했다는 소린 뭐야?”

“누구인지 알아맞히기. 이 장난, 스무고개처럼 네가 시작한 거 아냐?”

(중략) “너 진짜 어이없다, 야.”

은지가 팩 토라져서 자기 자리로 가는 걸 보며 제나는 교과서를 꺼냈다. (68쪽)

은지가 경민이에게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었을 때 경민이

는 그 대답 대신 ‘장난이 구리다’고 받아쳤다. 경민이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았든 경민이는 친구들의 눈치만 보고 있던 제나 대신 싸워준 것이다. 그리고 문구사 앞에서 제나가 헤리와 은지의 막말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리코더로 때리려고 하던 제나를 막아 주었다. 화가 난 제나는 리코더를 흘리고 나가 버렸는데 경민이는 제나가 연습해야 하는 악보와 함께 제나 자리에 슬며시 갖다 놓았다. 경민이가 대놓고 제나의 편을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합주에 필요한 악보까지 준비해서 자신이 흘리고 간 리코더를 자신의 책상 속에 넣어 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은 제나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데는 충분했을 것이다.

제나의 두 번째 조력자는 제나가 도둑으로 몰리던 날 무작정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가 가게 된 식당의 주인 콩 여사이다. 콩 여사가 제나를 부르는 ‘아가야’라는 말, 제나에게 두부를 챙겨준 일 등은 예민한 제나가 콩 여사를 ‘울어도 될 자리(황선미, 2021: 127)’로 생각하게 할 만큼 안정감을 주었다. 그래서 제나는 엄마는 호주에 가고 할머니가 와서 미나마저 데리고 갔을 때, 장이 찾아올 것 같은 위험 속에 제나만 혼자 남겨졌을 때 콩 여사를 찾아왔다. 그리고 콩 여사는 배가 고플 제나를 위해 상을 차려 주었다. 그리고 장이 찾아올까 겁에 질린 제나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던 콩 여사는 제나를 찾으러 온 형사에게 제나를 자신의 집에서 재워 주겠다고 했다.

이 작품에서 콩 여사의 분량은 딱 두 장면이다. 그러나 그 짧은 장면에서 제나는 상대를 향한 예민함을 견어낸다. 물론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콩 여사의 말과 행동은 제나의 경계심을 오래 가게 하지 않았고 제나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게 했다. 아픔이 누더기가 되어, 늘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나에게 콩 여사는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 같은 존재가 되어준 것이다.

제나의 세 번째 조력자는 제나 엄마와 제나를 담당하는 김 형사다. 탈북민에게는 담당 형사가 배정되는데, 탈북민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당 형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김 형사의 등장은 콩 여사의 등장 직후이다. 콩 여사를 우연히 만난 날과 혼자 남은 제나가 콩 여사를 찾아온 날은 제나가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결석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누더기’ 라고 한 말에 상처를 받고, 얼굴도 보기 싫은 생부가 찾아올까 봐 겁이 나 있는 제나를 두고 할머니는 친손녀인 동생만 데리고 갔다. 김 형사는 그런 제나를 걱정하는 듯 아닌 듯 신경을 쓴다. 그리고 김형사가 제나에게 한 ‘사춘기’ 라고 말했을 때 제나는 뭔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제나를 사춘기라고 인지하는 것은 적어도 제나의 일탈 행동을 ‘보통 애들이 하는걸 똑같이 하는 거’ 로 보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거슬리는 것을 할 때 ‘버릇이 없다거나 돼먹지 못하다’ 고 한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과는 다르게 느껴진 것이다.

김 형사의 조력 역할은 결정적으로 “경찰차로 데리고 오냐” 는 제나의 물음의 의미를 알아차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교문으로 들어갈 때 김 형사는 차에 경광등을 올려서 경찰차로 변신시켜 줌으로써 제나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게 해 주었다. 아이들이 웬 경찰차를 타고 왔냐고 호들갑을 떨 때 제나는 “삼촌 차를 타고 왔을 뿐” 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제나는 “삼촌? 경찰이? 우야!” 라는 아이들의 탄성을 듣게 된다. 제나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내면의 자아가 바닥까지 추락을 하는 상황에서 김 형사는 제나의 편이 되어줌으로써 제나의 내면이 회복되도록 도와왔고, 제나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씨앗의 역할을 했다.



이처럼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조력자는 탈북 아동을 경계인으로 내모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인물면서,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는 탈북 아동에게 손을 내밀어 탈북 아동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조력자를 통해 독자는 공동체 모두가 조화롭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한 구성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된다.

## 2) 정체성 회복

《열두 살의 모자이크》에서 주인공의 정체성 회복의 과정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 ‘조력자의 도움’, ‘사회적 타자화 극복과 정체성 회복’의 세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6〉 《열두 살의 모자이크》 주인공의 정체성 회복 과정

정체성 회복 과정	핵심 내용
정체성에 대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들이 제나를 ‘도둑’, ‘북한 애’ 라고 한 것과 ‘누더기’ 같다고 한 말로 인해 제나는 큰 상처를 받음.</li> <li>• 엄마가 제나를 두고 호주에 감. 이로 인해 제나는 엄마가 자신을 또 버릴 것 같아 두려워함.</li> </ul>
조력자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나가 콩사장 부부(조력자 1)로부터 위로를 받고 편안함을 느낌.</li> <li>• 반장 경민이(조력자 2)가 제나의 입장을 대변해서 은지를 공격함.</li> <li>• 형사 아저씨(조력자 3) 덕분에 아이들이 제나를 부러워함.</li> </ul>
사회적 타자화 극복과 정체성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나가 친구들 앞에서 당당해진 모습을 되찾음.</li> <li>• 법적인 절차를 통해 엄마가 제나와 동생 미나의 보호자가 됨. 이를 통해 엄마가 제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김.</li> </ul>

학급 아이들이 제나를 놀리는 것으로 시작된 ‘외부 요인에 의한 적극적 타자화’는 엄마에게조차 버려졌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움츠러듬에 해당하는 ‘내부 요인에 의한 타자화’와 결합하면서 제나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결국 제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회적 타자화를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학급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심어준 경민이, 자신이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준 콩 여사와 콩 사장 부부, 제나의 든든한 보호자라고 느끼게 해 주고 친구들 앞에서 제나의 편이 되어준 김 형사, 이들 조력자가 제나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해 준 것이다.

공부 시간 내내 제나는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자꾸만 가슴이 벌렁거려서 선생님 말소리도 안 들리고 칠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97쪽, 밑줄-연구자).

누군가가, 제나가 문구사 앞에 흘리고 온 리코더를, 함주에 필요하지만 제나가 준비하지 않았던 악보와 함께 제나 책상에 놓았다. 제나의 벌렁거림은 ‘이제 나도 혼자가 아니다’는 희망의 벌렁거림이다. 그것은 이제 제나도 타자화의 시선에서 견디어 낼 수 있음을 뜻한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었다는 사실은 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 주는 누군가가 있음을 깨닫게 했다. ‘제나의 편이 되어 주는 존재’에 대한 확인은 경계선에 있던 제나를 내부로 한발자국 옮겨 놓았다. 제나 반의 반장 경민이가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콩 사장 부부와 김 형사는 보호라고는 받아 본 적이 없는 제나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주었다. 늘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며 살아 온 제나는 이들 앞에서 침착함을 팽개치고 눈물을 터뜨렸다.

성당 시설에서 제나는 혼자 건디는 법을 배우며 여덟 살이 되었다. 혼자일 때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해지기가. 그러면 방법이 보인다. (69쪽).

콩 사장의 호통에 눈물이 터져 버렸다. 울지 않으려고 아무리 이를 앙다물어도 소용없었다. (중략) 제나의 울음보가 터진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기를 안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던 애가 울어도 될 자리를 알아차렸을 뿐이다. (127쪽)

그리고 요란한 경광등과 함께 학교에 들어온 후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말하는 아래 장면은 제나가 더 이상 친구들의 눈치를 보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준다.

“삼촌 차를 뺏을 뿐이야.” (중략)

거짓말이라 꿈무니 빼듯이 말끝을 흐렸는데 애들한테는 제나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것으로 보였다.

은지의 표정이 묘하게 뒤틀렸다. 그러더니 툭 말했다.

“정말 정체를 모르겠는 애야.”

“난 그냥 나야. 모자이크 12.” (145-146쪽).

작품 속 제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자이크는 누더기의 다른 말 같은 것이다. 제나는 누더기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정했고, 그 정체성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거지 같은’ 누더기가 아니라 ‘교회의 창문같이 아름다운’ 열두 살의 모자이크, 그게 ‘모자이크 12’ 이다.

작품에 ‘모자이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엄마가 말없이 호주로 떠나고, 할머니가 동생 미나만 데리고 할머니 집으로 갔을 때, 생부인 장이

자신을 찾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세 시간 반밖에 못 자고 일어난 아침이었다.

아침 햇살이 화장대 거울에 부드럽게 번져 있었다. 창문에 붙인 빨강과 주홍, 그리고 파랑과 보라 셀로판지를 통과한 빛이었다. 분홍 같기도 노랑 같기도 한, 하늘색과 연두색으로도 보이는 또 다른 햇살. 창문에 붙은 각각의 색깔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부드럽게 이어져 하나가 되었다. 눈물이 어롱거려서 그렇게 보이는지도 몰랐다.

“후, 예쁜 모자이크네…….”

떨쩍한 척했으나 울음이 뱀 목소리 끝이 떨렸다.

제나는 모자이크 빛을 얼굴 가득 받으며 눈을 감았다. 엄마는 아침마다 이 빛을 보았을까. 셀로판지 밑에는 투명 테이프가 있고, 그 밑에는 깨진 유리가 있지만 어쨌든 아침에는 이렇게 예쁜 빛이 들기도 했구나. (113쪽).

제나는 지금 ‘예쁜 모자이크’를 보고 있지만 그것의 실체는 예쁜 것이 아니었다. 엄마와 아빠의 싸움으로 금이 간 유리가 완전히 깨질 것 같아서 누군가 테이프를 붙였고, 그 위에 미나가 셀로판지를 덧붙였다. 그리고 셀로판지가 통과해 낸 빛과 제나의 눈물이 함께 예쁜 모자이크를 만들어 냈다. 즉, 예쁜 모자이크의 원래 모습은 금이 간 유리였고, 그것은 엄마, 아빠의 싸움으로 생긴 흔적이었다. “후, 예쁜 모자이크네…….” 라고 말하는 제나의 목소리에 울음이 배어 있었던 것은 모자이크가 품고 있는 아픔을 인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금이 간 유리를 인지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제나는 예쁜 모자이크가 지닌 아픔이 곧 누더기 같은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러한 인지는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콩 사

장 부부에게로 향한 제나는 그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다.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며 무슨 일이 있으면 더 침착하게 행동했던 그동안의 제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침착함을 팽개치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낸 제나는 콩 사장 부부와 김 형사의 위로를 받게 된다. ‘열두 살의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웠을 삶의 조각들’을 갖고 있는 제나는 그렇게 회복을 시작한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에는 숨어 있던 또 하나의 조력자가 등장한다. 그는 바로 제나의 엄마이다.

제나는 늘 엄마에게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제나의 불안감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제나의 엄마는 제나에게 말도 없이 새아빠가 있는 호주로 갔다. 제나는 엄마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

엄마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배신이다. 전에는 시설에다, 또 중국에다 버려더니 이제 엄마가 떠나 버렸다는 거다. 설마, 장이 여기까지 온 게 엄마 때문인가. 엄마가 장을 불렀을까. 아버지한테 가라던 말이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었던 걸까. (109쪽).

빈방과 부엌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고작 세 시간이었으나 잠은 머릿속을 차분하게 해 주었다. 제나는 똑 떨어져서 혼자만 남는 경험을 이미 두 번이나 해본 아이였다. 이제는 세 번째. 아무리 슬프고 화가 나도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걸 제나는 알고 있었다. 분노를 태연하게 감추는데 익숙해진 것이다. (112쪽, 밑줄-연구자).

이제 ‘세 번째’ 엄마에게 버려지는 중인 제나는 슬프고 화가 나지만 정신을 차리려 애쓴다. 그리고 다행히도 호주에서 돌아온 엄마는 제나가 쓰러지지 않게 해 주었다. 큰돈을 들여서 제나의 치아를 교정해 주었고, 더 이상 제나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언니, 나도 이제부터 송미나래. 엄마, 근데 왜?” (중략)

“그러면 나, 이제부터 아빠랑 끝이야?”

“아니, 성만 바뀌는 거야. 아빠랑 할머니는 그대로야. 전처럼 막 찾아오진 못하겠지만, 만날 수 있고 전화해도 돼. 그리고 싶으면.” (중략)

① “나도 그래? 나도 하얼빈에 가야 해? 엄마는 나를 보내고 싶어?”

엄마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제나를 보았다. 한참 동안. ② 제나는 천연덕스레 고기를 집어 먹었다. 그리고 질경질경 씹었다.

“가고 싶으면 가. 하지만 어른 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

③ 제나는 눈을 부라리는 엄마를 보며 배시시 웃었다. 엄마를 봐주기로 한다. 앞으로 엄마가 뭘 잘못하든 하나쯤은 미리 용서해 주겠다. (154쪽, 밑줄 및 번호-연구자).

엄마는 호주에 가서 아빠가 미나의 보호자임을 포기하는 서류를 받아 왔다. 그리고 엄마는 완벽하게 제나와 미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나는 ‘아빠랑 할머니가 그대로’ 라는 말의 의미가 자신을 중국으로 보내려는 뜻인 줄 오해한다. 그래서 ①의 질문을 던지고, 긴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②와 같은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엄마는 ‘절대 너 안 보내’ 라는 뜻의 대답을 했고 ‘배시시’ 웃는 제나의 모습은 엄마가 이제는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가장 가까운 존재인 가족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제나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까 긴장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제나가 가진 아픔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분노도, 수치심도, 외로움도 감추며 살아온 제나는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 이제는 엄마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버려짐으로 인해 제나에게 더해져 왔던 ‘누더기’는 이제 제나의 인생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열두 살의 모자이크》에서 인물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조력자는 탈북 아동이 사회적 타자화의 시선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다수의 구성원에 의해 만들어진 타자화의 의미망을 탈북 아동 혼자 힘으로 깨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력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조력자는 탈북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구성원에게 ‘우리의 관심이 움츠린 탈북 아동의 어깨를 펴도록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조력자는 탈북 아동에게 ‘우리의 손을 잡고 구석진 곳에서 나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 이렇게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조력자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하는 인물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조력자를 통해 주인공의 정체성 회복으로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국민의 진정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희망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탈북 아동에 대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작품 안에 탈북 아동을 괴롭히는 인물들과 돕는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독자는 작품을 통해 탈북 아동의 정서를 공감하면서 현실 공간에서 우리 이웃으로 존재하는 탈북 아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성찰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탈북 아동의 조력자는 탈북 아동의 상

황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탈북 아동의 편이 되어 준다. 탈북 아동은 이들로 인해 안정감을 얻으며 정체성을 회복해 나간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인물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당당한 인식을 통해 그들 주변의 현상에 대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주권적 역할을 하게 된다. 탈북 배경 아동이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들이 가진 혼종적 정체성은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한다. 탈북 아동이 가진 혼종적인 정체성은 “남북한 어느 한쪽에 자신의 정체성을 정박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트랜스로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지역을 넘어 탈영토화된 상상력을 가진 비판적 문화해석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징표(조정아, 2014: 146)” 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회복하는 탈북 아동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기초적인 디딤돌인 동시에 혼종적 정체성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비판적 문화해석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탈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탈북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이루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러한 환경적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탈북 아동의 조력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이러한 인물들로 인해 탈북 아동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희망의 기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탈북 아동 주변의 다양한 인물의 모습은 탈북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독자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게 한다.

이상과 같이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과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기억을 형상화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는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형



상화하고 있는 기억의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인지하는 관점이다.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을 언급하겠다.

첫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기억이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문화적 기억으로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보는 관점에서는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집중적으로 형성하는 의미를 더욱 중요하게 놓아야 한다. 각각의 기억들이 형성하는 의미들이 존재하지만, 기억들이 가지는 여러 의미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의 의미는 개별 기억의 의미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사건들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허구 공간을 실제와 꺾진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닌 허구이다. 이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탈북 아동 개인의 사건을 탈북민 전체의 경험으로 인지하거나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기억을 공적인 기억으로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탈북민 전체가 가지는 개별적인 경험이 아니다. 독자는 문학작품 전체를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작품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가 이러한 자세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접할 때,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서의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현재적으로 해석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지닌 의미는 변화될 수 있다. 문화적 기억은 고정된 의미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객관화된 의미에 대해 자신의 관점으로 현대적 맥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적 기억이 재구성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sup>8)</sup>

문화적 기억에 대한 현재적 재구성은 기억의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하며 문화적 기억을 성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것에 주의하면서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대한민국 구성원을 향한 호소를 담은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로 인지한다.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인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들은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탈북 아동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호소하는 것이고 둘째,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탈북 아동을 타자화하는 시선에 대한 성찰을 호소하는 것이며, 셋째, 이러한 타자화의 시선을 거두고 탈북 아동을 ‘우리’로 인정하며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살기를 호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호소를 담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지속적으로 창작되고 읽혀질 때,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대한민국을 변하게 하는 문화적 일렁임을 일으킬 수 있다. 대한민국을 변하게 하는 문화적 일렁임이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지향하고 있는 탈북 아동에 대한 시선의 전환과 조화로운 공존의 삶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문화의 형성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창작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러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

8) 재구성 능력은 Assman & Czaplicka(1995)에서 논의된 문화적 기억이 가지는 여섯 가지 속성 중의 하나이다.

## V. 결론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형상화에 관한 연구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주요 인물은 전쟁이라는 역사적 상처의 증인이자 현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탈북 아동이다. 탈북 아동은 전쟁이라는 과거 사건의 증인으로서 현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인물이다. 탈북 아동의 기억을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문학 텍스트의 기억 연구와 구별점을 지닌다.

문학은 사회 구성원들의 기억을 담는 공간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경험하는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탈북 아동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의 형상화를 살피기 위해 본고는 2000년 이후 발간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서 초등 중학년과 초등 고학년 대상 작품 9편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란 탈북 아동이 중심인물이 되는 아동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본고는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탈북민인 제3국 출생 아동’이 등장하는 작품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삶이 디아스포라인 탈북민의 삶과 유사하고, 부모가 탈북민이기 때문에 작품에 탈북민의 서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등장하는 탈북 아동은 자신이 살던 터전을 떠나온 디아스포라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주하여 정착한 곳에서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 또한 이들은 전쟁으로 나누어진 분단국가의 기록이다. 이러한 면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디아스포라 문학, 다문화 문학, 분단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통일

이라는 미래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존재적 가치를 지니는 탈북 아동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사실적 표현 방법은 아동 독자가 자신과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자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탈북 아동을 깊게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분단의 증인이면서 디아스포라인 존재로서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탈북 아동의 서사, 그리고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취하는 사실적 표현 방법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특성을 나타낸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아픔의 기억, 그리움의 기억, 희망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아픔의 기억은 탈북민들의 고국인 북한에서 살던 기억과 탈북 후 이주 과정에서 겪은 아픔, 그리고 디아스포라인 탈북 아동의 경계인적 위치가 만들어 내는 사회적 타자화와 관련한 고통의 기억이다. 사회적 타자화는 탈북 아동에 대한 비난, 놀림, 무지 등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와 경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신을 자각한 탈북 아동이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내부적 요인에 의한 타자화’로 나뉜다.

다음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그리움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아동은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적 존재로서, 그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그리움은 공간, 사물 등 탈북 아동이 정착한 사회에서 접하는 여러 매개체들을 통해 소환된다.

마지막으로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는 희망의 기억이 형상화되어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희망의 기억은 첫째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요, 둘째는 고통을 딛고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겪는 사회적 타자화로 인해 좌절하는 모습이 아닌,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를 극복하는 희망의 기억이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형상화된 기억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탈북민과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탈북 아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탈북 아동은 아픔과 그리움과 희망의 기억을 가진 존재이다. 탈북 아동은 고향을 떠난 디아스포라이고, 낯선 사회를 살아가는 다문화적 존재이며, 분단의 증인이다. 탈북 아동은 탈북과 이주의 험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 온 존재들이다.

둘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함께 통일에 대한 희망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탈북민에게 통일은 정치적 통일이기 이전에 그들이 버리거나 누르고 살아 온 정체성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통해 탈북 아동과 탈북민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질 때, 탈북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구성원은 통일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게 된다.

셋째,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작품 안에 이들을 타자화하는 인물들과 돕는 인물들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탈북 아동이 아픔을 겪거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기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나타난 기억들은 이와 같은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 구성원 전체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공동체의 의식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기억은 문화적 기억과 관련하여 재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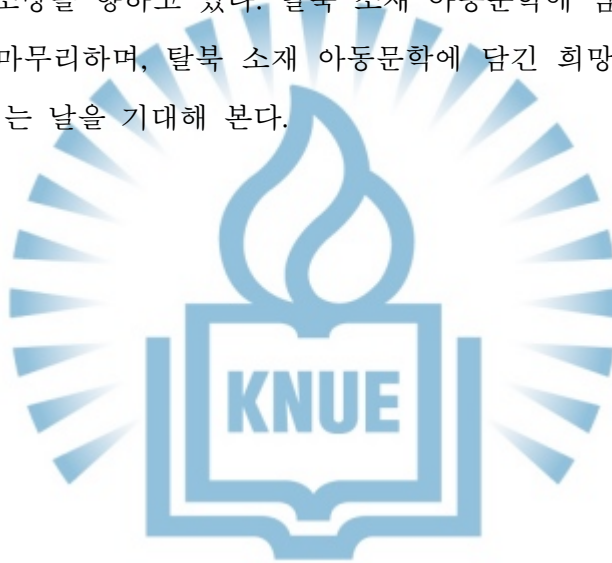
문화적 기억은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조직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전

진성, 2005)” 으로, 문학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기억의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매개체로서 탈북 소재 아동문학을 바라볼 때,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문화적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탈북 아동이 속한 공동체의 기억을 형상화함으로써, 탈북 아동의 존재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인정, 탈북 아동에 대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성찰,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소를 담은 탈북 소재 아동문학의 지속적인 생산은 탈북 아동과 관련한 유의미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탈북 아동에 대한 시선의 전환과 조화로운 공존의 삶이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는 문화의 형성을 의미한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은 이러한 문화적 기억을 형성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형성하는 문화적 기억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통일을 앞당기게 한다. 전쟁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남과 북 모두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다. 전쟁의 상처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닌, 통일이라는 미래적 희망 가운데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라는 미래적 희망은 탈북이라는 현재적 실체의 대면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먼저 온 미래’로 우리 곁에 있는 탈북 아동에 대한 타자화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통일을 논할 수 없다. 다수의 탈북민이 다시 탈남을 선택하고 있다는 실체적 현상에도 불구하고 탈북민에 대한 타자화의 시선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이 실제의 통일이 아닌 공상의 통일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이 문화적 기억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탈북 아동과의 조화로운 공존의 삶은 진정한 통일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본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탈북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전지구적인 탈북민을 향한 관심을 의미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시선은 결국 전 세계 탈북민을 향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옆에 와 있는 탈북 아동을 향해 관심을 표현하고 이해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기억들은 탈북 아동과 대한민국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을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을 향하고 있다.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기억을 살핀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탈북 소재 아동문학에 담긴 희망의 기억이 현실로 형상화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1. 기본자료

- 문영숙(2013). 《개성빵》, 아이앤북.
- 박경희(2013). 〈자그사니〉, 《류명성 통일 빵집》, 뜨인돌.
- 박경희(2013). 〈빨래〉, 《류명성 통일 빵집》, 뜨인돌.
- 박경희(2017). 《난민 소녀 리도희》, 뜨인돌.
- 박경희(2021). 《리루다네 통일밥상》, 한솔수북.
- 박경희(2022).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주니어김영사.
- 원유순(2013). 《북녘 친구 남녘 동무》, 국민출판사.
- 이청해(2016). 《개구리 울음소리》, 물망초.
- 허순영(2017).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노란돼지.
- 황선미(2021). 《열두 살의 모자이크》, 창비.

### 2. 그 외 자료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다문화 문학”. 검색일 2023.10.25.
- 김명주(2017.9.5.). 시사기획 창. **분단의 방랑자들**. KBS.
- 박재용(2017. 9. 5.). 시사기획 창 - 분단의 방랑자들. 한국방송공사(KBS).
- 양계민 외(20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  
격차 해소방안연구-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19-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양계민(20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장훈(2018.12.21.). 중국에 팔려 간 탈북 여성들 난민 인정을! 유엔,  
중국에 ‘농 르플르망 원칙’ 준수 요구. **주간조선**.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34>>에서  
2023.10.10. 검색함.

조다운(2022. 1. 9.). ‘탈남’ 탈북민 700명 넘어… “생활고·차별로 적응  
어려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8047900004>>  
에서 2023. 11. 23. 검색함.

통일부(2022. 1. 9.). 보도자료. ‘탈남’ 탈북민 700명 넘었다는 연합뉴  
스 1.9.자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955&category=&pageIdx=>](https://www.unikorea.go.kr/unikorea/new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04&mode=view&cntId=54955&category=&pageIdx=>)>에서 2023. 11. 23. 검색함.

통일부(2023).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연령대별 입국현황 20200331.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에서 2023. 10.11. 검색함.

한국문학평론가협회(2006). **《문학비평용어사전》(상)**. 국학자료원.

### 3. 단행본

강전희(2005). **노근리, 그해 여름**. 사계절.

강진호(2000). **1970년대 문학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소명출판.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2015). **탈북민의 적응과 치유 이야기**.  
경진출판

고영빈·이영석·정유경(2005). **어디까지 왔나, 무엇이 쟁점인가?**. 우양.

구인환·박인기·우환용·최병우(2017). **문학교육론**. 삼지원.

권영민(1992).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김경학(2015).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들**. 전남대학교출판부.

김바다(2002). **비닐뚱**. 삼성당.

나병철(2020). **문학의 시각성과 보이지 않는 비밀**, 문예출판사.

류덕제(2017). **한국 현실주의 아동문학 연구**. 청동거울.

문선이(2003). **딱친구 강만기**. 푸른숲.

- 문영숙(2020). 나의 할아버지, 인민군 소년병. 서울셀렉션.
- 민성길·전우택·윤덕용(2020). 탈북자와 통일 준비: 남북한 사람들의 정신사회적 갈등 구조 및 그 해소방안. 연세대학교출판부.
- 박덕규·이성희(2012). 탈북 디아스포라. 푸른사상.
- 박현숙(2013). 국경을 넘는 아이들. 살림어린이.
- 방민호 외(2019). 탈북 문학의 도전과 실험-개념, 양상, 작품들. 역락.
- 변학수(2008).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 선주원(2013). 아동문학교육론. 박이정.
- 원유순(2015). 떠돌이별. 파란자전거.
- 원종찬(2004). 동화와 어린이. 창비.
- 윤인진(2005).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인진(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책. 집문당.
- 이선주(2013, 시민과 디아스포라 사이) 경계인들의 목소리. 그린비.
- 이성주(2017). 거리 소년의 신발. 푸르른숲.
- 이소희 외(2012). 다문화사회: 이주와 트랜스태셔널리즘. 보고서.
- 이오덕(1977). 시정신과 유희정신. 창작과 비평사.
- 이오덕(2010). 삶을 가꾸는 어린이문학. 고인돌.
- 이재철(2007). 남북아동문학연구. 박이정.
- 이주형·류덕제·임성규(2009). 한국 아동청소년 문학 연구. 한국문화사.
- 이준호(2017). 할아버지의 뒤주. 사계절.
- 이진우·김민정(2014). 호모메모리스. 책세상.
- 이태주(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휴머니스트.
- 정래필(2013). 기억 읽기와 소설 교육. 푸른사상.
- 정재찬 외(2014). 문학교육개론 I. 이론편. 역락.
- 최금락(2008). 크로싱. 환타웍스.
- 최문규 외(2003). 기억과 망각. 책세상.
- 한운섭(2010). 봉주르, 두르. 문학동네.
- Assmann, A.(2009). 변학수·채연숙 역(2011). 기억의 공간. 그린비.

- Erll, A. & Nünning, A. (2008).(Eds.). *Cultural memory studies: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handbook*. (pp.301-310). De Gruyter (in collaboration with Sara B. Young).
- Lankov, A.(2013). 김수빈 역(2013). **리얼 노스코리아**. 개마고원.
- Nuenning, A.<sup>9)</sup> & Sommer, R.(2004). 문화학연구회 역(2005). **문화이론과 문학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 Nünning, A.(2018).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 Nünning, V.(2006). **현대 문화학의 컨셉들**. 유로서적.
- Kearney, R.(2004). 이지영 역(2004). **이방인 · 신 ·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원.
- Wurth, K. B. & Rigney, A.(2019). *The life of texts: an introduction to literary studies*. (pp.361-386). Amsterdam University Press.
- Lotman, Y(1990). 유재천 역(1998). **문화 기호학**. 문예출판사.

#### 4. 참고 논문

- 강연목(2022).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역사동화의 문화적 기억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고인환·이정선(2018). 탈북자 단편소설에 나타난 분단 현실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61, 65-95.
- 권근영(2020). **통일 문학교육으로서 탈북자 소설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경우(2007). 한국 리얼리즘 동화연구: 한국 동화의 리얼리즘은 가능한가?. **한국아동문학연구**, 13, 191-209.
- 김대중(2020). 초국가주의시대 미국 문학 속 탈북난민 내러티브 연구. **동서비교문학저널**, 54, 7-28.
- 김명옥(2018). 아동문학을 통해 본 별거벗은 생명 이야기: 탈북민을 중

---

9) Nünning, A.와 동일 인물임. 여기서는 단행본 《문화이론과 문학연구》에 표기된 것을 따라서 Nuenning, A.로 기재하였음.

- 심으로. **동화와 번역**, 35, 98-121.
- 김미애(2014). **2000년대 동화에 나타난 탈북아동 캐릭터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김미영(2015). ‘통일교육’을 위한 ‘문학’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2012 고시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47, 49-83.
- 김민숙(2019). 탈분단시대의 탈경계인의 유형과 특수성. **한국문화기술**, 15(1), 7-41.
- 김병철(2020). 언론 보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칭어가 수용자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20(4), 5-41.
- 김세령(2013). 탈북자 소재 한국 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53, 35-86.
- 김영애(2020). 분단소설의 문학교육적 위상과 의미: 2015 개정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융합인문학**, 8(1), 73-95.
- 김인경(2014). 탈북자 소설에 나타난 분단현실의 재현과 갈등 양상의 모색. **현대소설연구**, 57, 267-293.
- 김정원(2010). 다문화교육의 문학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탐색: 로젠블렛의 교류이론에 근거한 고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1(2), 133-151.
- 김태호(2015). 김남중 단편동화의 리얼리즘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8, 5-27.
- 김태호(2021). 아동문학에 나타난 문화적 기억-아동문학이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는 방법. **한국아동문학연구**, 41, 5-28.
- 김화선(2020). 차이의 지정학과 사랑의 정동: 탈북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03, 155-176.
- 김효석(2021). 탈북민 문학의 현황과 전망-[망명 북한 작가 PEN 문학]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6, 117-152.
- 김효숙(2019). 재현 방식으로 본 ‘탈북 언어’ — 탈북 작가의 작품집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18(1), 31-62.
- 남궁정(2022). 문화지리학을 통한 문학공간 이해 교육: 탈북 디아스포라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78, 55-92.

- 노종진(2021). 크리스 리의 [나는 어떻게 북한인이 되었는가] 에 나타난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와 난민의 문제. **새한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19-226.
- 노명환(2013). 구성주의 이론 시각에서 본 기록학/기록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와 기록화 전략의 의미와 의의: 거버넌스 사회의 실현과 역사 연구의 새 지평을 위하여. **역사문화연구**, 45, 313-358.
- 명정(2020). 난민 문제와 문학-청소년 문학 텍스트를 통한 사회비판적 문제의식 형성. **독어독문학 (구 독일문학)**, 156, 137-160.
- 박덕규(2015). 탈북문학의 형성과 전개 양상. **한국문예창작**, 14(3), 89-113.
- 박덕규·안수연(2017). 탈북동화 속 탈북아동의 현실 투영 연구. **한국문화기술**, 23, 35-60.
- 박주형(2022). 분단 기억을 대상으로 한 통일문학교육의 방향: 김원일의 <노을>에 형상화된 폭력 경험의 재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91, 187-219.
- 박찬일(2012). ‘기억하기’를 통한 진정한 통합의 탐색 - Thomas Brussig의 『존넨알레』에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방은수(2021). 탈북 소재 아동문학 작품의 교육적 수용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71, 115-132.
- 백지윤(2019). 탈북 서사 문학의 서사 전략과 윤리-제프 탈라리고(Jeff Talarigo)의 [다시 그 강가에 서다(The Ginseng Hunter)]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1, 35-60.
- 변화영(2007). 전후소설에 나타난 전쟁 경험과 휴머니즘의 교육적 담론: 제7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주요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0, 247-266.
- 서세림(2017). 탈북 작가 김유경 소설 연구: 탈북자의 디아스포라 인식과 정치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52, 81-104.
- 서세림(2022). 초대받지 못한 손님과 복화술사들: 탈북문학과 혐오담론. **안과박**, 52, 189-215.
- 선안나(2006). 1950년대 동화·아동소설 연구-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박

- 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선주원(2011). 한국 환상 동화에서의 환상성 구현 방식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0, 209-238.
- 선주원(2012). 역사동화에 구현된 과거 역사의 현재적 의미화와 열린사회에의 지향. **한국초등국어교육**, 48, 113-147.
- 선주원(2020). 문화적 기억의 상호텍스트성 이해를 통한 상호감수성 증진을 위한 서사교육 내용. **독서연구**, 55, 81-104.
- 성유경(2015). 탈북 어린이와 한국 아동문학. **창비어린이**, 13(3), 109-119.
- 손병용(2022).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탈북자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탈북민의 비체(bject)로서의 자기 인식과 목소리 내기. **동서비교문학저널**, 62, 169-195.
- 송희복(2010). 한국 다문화 소설의 세 가지 인물 유형 연구. **배달말**, 47, 309-334.
- 신세니·유승희·조희숙(2008). 동화에 나타난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7(2), 41-57.
- 신용철(2014). 문화적 기억과 자기이해 그리고 기억 책임. **해석학연구**, 35, 201-230.
- 신효숙 · 김창환 · 왕영민(2016). 북한주민,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시공간적 경험 공유 집단 분석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속성 재해석. **통일인문학**, 67, 41-80.
- 심민경(2005). **분단문학을 통한 통일교육의 의의에 관한 연구 -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안수연(2017a). **원유순의 동화문학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수연(2017b). 탈북 소재 동화 연구: 탈북 정착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 227-254.
- 안점옥(2017). 5·18을 기억하는 아동문학의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 363-398.
- 양예빈(2013).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문학교육 연구-문화적 기억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양정임(2018). 통일시대 준비교육을 위한 문학작품 도입과 활용방안-고등학교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0, 249-286.
- 오길주(2003). **한국 동화 문학의 현실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오연옥(2022). 코리안 디아스포라 소설의 증오인식과 공존의 가치 연구. **한국문학논총**, 90(1), 285-339.
- 오운호(2011). 탈북 디아스포라의 타자 정체성과 자본주의적 생태의 비극성: 2000년대 탈북 소재 소설 연구. **문학과환경**, 10(1), 235-258.
- 오태영(2022). 탈북 청년의 월경과 유럽 난민의 연대—조해진의 [로기완을 만났다]를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34, 41-65.
- 유예원(2009). **황석영 전쟁소설의 기억 양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미애(2002). 매체와 문화적 기억. **독일어문화권연구**, 11, 38-62.
- 윤정화(2019). 탈북자 소재 소설에 나타난 타자 수용의 윤리적 감성. **교양학연구**, 10, 157-184.
- 이광복(2007).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29-51.
- 이도담(2016). 문화적 기억과 장소에 관한 성찰. **철학과 문화**, 36, 70-91.
- 이병준(2008). 문화적 기억과 문화교육. **문화예술교육연구**, 3, 53-68.
- 이상현(1996). 아동문학과 리얼리즘. **한국아동문학연구**, 5, 135-140.
- 이소희(2020). 탈북이주여성 자전적 서사에 나타난 생존의 정치학: 박연미의 살기 위해서를 중심으로. **영미문화페미니즘**, 28(3), 69-113.
- 이영미(2015). 남북한 아동문학 판타지의 통일담론 연구. **평화학연구**, 16(1), 111-128.
- 이용일(2009). ‘트랜스내셔널 전환’ 과 새로운 역사적 이민연구. **서양사론**, 103, 315-342.
- 이유숙(2013). 다문화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문학 교육방안 연구.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300-306.

- 이정연(2018). **탈북 소재 동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이중훈(2021).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71-93.
- 이진(2016). 분단과 통일의 문화적 기억: 기억의 공간 그리고 분단국가의 문화적 통일. **미학예술학연구**, 47, 111-140.
- 이향근(2016). 아동문학에 나타난 북한이탈학생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청람어문교육**, 60, 271-289.
- 이행선(2023). 난민,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과 인권, 문화 갈등: 표명희, [어느 날 난민](2018). **민주주의와 인권**, 23(2), 229-261.
- 이혜연(2018). **탈북작가 북한 재현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현실 대응 양상**.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임경순(2011). 다문화 시대 소설(문학)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 36, 387-420.
- 임경순(2017). 전쟁, 기억 그리고 문학교육에 대한 일 연구 - 윤홍길의 <소라단 가는 길>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6, 75-95.
- 임은진(2012). 6.25 전쟁에 대한 문화적 기억과 장소. **문화역사지리**, 24, 155-166.
- 임인화(2021). 통일문학교육 체재로서 디아스포라 문학 역할 연구. **우리말글**, 90, 149-190.
- 임정택·손지혜·곽태환·정서경(2021).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아동문학 권장도서 분석: 다문화적 접근. **한국이민학**, 8(2), 138-159.
- 전영주(2018). 다문화시대의 문학담론과 형상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학적 시도들. **동악어문학**, 75, 227-248.
- 전이섭(2021). 기억의 문화적 실천. **오늘의 문예비평**, 210-224.
- 정래필(2013). 문화적 기억의 문학교육적 가능성. **국어교육**, 143, 191-212.
- 정재림(2006). **전쟁 기억의 소설적 재현 양상 연구: 유년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재림(2016). 국어 교과서에서 문학 제재의 위상과 중요성. **한국어문교육** 19,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22.



- 정호섭(2021). 문학적 서사의 역사화와 기억의 전승. *선사와 고대*, 66, 209-242.
- 조정아(2014). 탈북 청소년의 경계 경험과 정체성. *현대북한연구*, 17(1), 101-155.
- 차혜영(2010). 문학교육에서 바라본 전쟁의 기억과 체험: 신자유주의적 생존경쟁과 한국전쟁의 소설적 전유: 6, 7차 교육과정기 국어,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33, 69-98.
- 최 용(1992). 리얼리즘 그 동심적 조응. *한국아동문학연구*, 2, 119-126.
- 최유숙(2016). 신문기사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 지칭어 분석: 지칭어와 관련어의 공기어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7, 33-66.
- 한명환(2008). 아동서사의 판타지이론 연구-한국 동화의 판타지 유형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5, 241-264.
- 한신혜(2017). **김원일 분단소설의 문학과 역사성 - 『아들의 아버지』, 『푸른 혼』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호정화(2022). 탈북여성의 트라우마와 치유-황석영의 [바리데기] 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연구*, 14(1), 73-99.
- 황선옥(2015). **탈북 소재 동화·청소년소설 연구: 인물의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황정현(2011). 사실동화(事實童話)의 현실 반영 문제. *한국아동문학연구*, 20, 187-207.
- Erll, A. & Rigney, A.(2006). Literature and the production of cultural memory: Introduction.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0(2), 111-115.
- Erll, A.(2012). Cultural memory.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Theory and Practice*, 238-242.
- Assmann, J. & Czaplicka, J.(1995). Collective memory and cultural identity. *New german critique*, 65, 125-133.
- Gedi, N. & Elam, Y.(1996). Collective memory—what is it?. *History and memory*, 8(1), 30-50.
- Lachmann, R.(2004). Cultural memory and the role of literature.

*European Review*, 12(2), 165-178.

Tötölyan, K.(1996). Rethinking diaspora (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5(1), 3-36.



<부록 1> 2000년 이후 발표된 탈북 아동문학 작품 목록

순	제목	저자	발행 년도	출판사	분량 (쪽)	참고내용
1	《두만강을 건너간 꽃제비들》	정목일	2000	경남아동문학회	211	절판
2	《비닐똥》	김바다	2002	여명미디어	96	절판
3	《나라를 버린 아이들》	김지연	2002	진선출판사	93	그림책
4	《붉은 꼬마원숭이 으쌰》	임신행	2003	세계문예	195	절판
5	《딱친구 강만기》	문선이	2003	푸른숲	230	
6	《무지개다리를 타고 온 소년》	김하늬	2004	계몽아동문학회		(원본을 구할 수 없음)
7	《피양랭면집 명옥이》	원유순	2005	웅진주니어	116	
8	《새터민 석철이》	고정욱	2007	뜨인돌어린이	166	
9	《리남행비행기》	김현화	2007	푸른책들	290	
10	《꽃제비와 똥돼지》	이지현	2007	영림카디널	183	
11	《내 동무 정찬이》	임희옥	2008	아이코리아	33	그림책
12	《크로싱》	최금락	2008	환타웍스	165	절판
13	《나는야, 늙은 5학년》	조경숙	2009	비룡소	229	
14	《봉주르, 뚜르》	한운섭	2010	문학동네	216	
15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북한편》	이은서	2011	국민출판사	161	단편 6편이 수록됨
16	《열하일기》	김도연	2012	북멘토	186	《난 아프지 않아》에 수록된 작품
17	《엄마는 감자꽃 향기》	박경희	2012	강같은평화	65	
18	《내가 이상합니까?》	홍종의	2012	효리원	112	
19	《우주비행》	홍명진	2012	사계절	262	
20	《북녘 친구 남녘 동무》	원유순	2013	국민출판사	186	
21	《옥수수 할아버지》	곽영미	2013	다섯수레	77	

22	《마음이 사는 집》	최모림	2013	북멘토	184	절판
23	《이상한 놀이공원》	김형진	2013	파란정원	126	
24	《내가 이상합니까?》	홍종의	2013	효리원	109	
25	《개성빵》	문영숙	2013	아이엔북	167	
26	〈류명성 통일 빵집〉					
27	〈빨래〉					
28	〈오뎅이 열쇠고리〉					《류명성 통일 빵집》에 수록된 작품임.
29	〈아바이순대〉	박경희	2013	뜨인돌	175	
30	〈자그사니〉					
31	〈책 도둑〉					
32	《국경을 넘는 아이들》	박현숙	2013	살림어린이	209	
33	〈마대자루에서 나온 아이〉					
34	〈‘진짜’의 거짓말 같은 참말〉	정길연	2014	물망초	89	
35	《떠돌이별》	원유순	2015	파란자전거	192	
36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	설지현	2015	물망초	253	
37	《낙타 가시꽃의 탈출》	신진	2015	물망초	102	
38	《너는 들창코 나는 발딱코》	박현숙	2015	좋은책어린이	62	
39	《먼저 온 미래》	김정희	2015	사계절	48	
40	〈감자오그랑죽〉					
41	〈내일은 마트에 간다〉					《감자 오그랑죽》에 수록된 작품임.
42	〈예쁜 누나 선생님이 나타났다〉	박경희	2015	물망초	120	
43	〈까막눈 탈출〉					
44	《낙타 가시꽃의 탈출》	신진	2015	물망초	102	
45	《개구리 울음소리》	이청해	2016	물망초	118	

46	《헬로! 두떡마켓》	김이플	2016	씨즐북스	34
47	《북치는 소녀》	강석경	2017	물망초	102
48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생겼어요》	정길연	2017	물망초	89
49	《꽃배를 탄 아이》	김이플	2017	푸른사상	110
50	《난민 소녀 리도희》	박경희	2017	뜨인돌	180
51	《엄마, 우리 이젠 울지 마요》	노경실	2017	물망초	80
52	《거리 소년의 신발》	이성주	2017	씨드북	309
53	〈새터민 이야기-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경아	2017	거인	132
54	《나는 북한에서 온 전학생》	허순영	2017	노란뽕지	126
55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박경희	2018	뜨인돌어린이	133
56	《리수려, 평양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박경희	2020	단비	221
57	《열두 살의 모자이크》	황선미	2021	창비	160
58	《리루다네 통일밥상》	박경희	2021	한솔수북	207
59	《리정혁의 백두산 하이킹》	박경희	2022	주니어김영사	215

주 :

1. 위 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역 도서관 및 대형서점 사이트 검색, 출판사 문의 등을 통해 현 연구자가 추가 작성한 것이다. ‘분량(쪽)’의 경우 단편의 쪽수가 아닌 책 전체 쪽수를 기록하였다.
2. 1번 〈두만강을 건너간 꽃제비들〉은 동화·동시집 《두만강을 건너간 꽃제비들》에 수록된 단편 작품으로 현재는 절판되었다.
3. 2번 〈비닐똥〉은 《비닐똥》에 수록된 단편 작품으로 현재는 절판되었다.
4. 3번 《나라를 버린 아이들》은 현재 작가의 이름은 기재되지 않고

- ‘강전희 그림’ 만 기재하여 판매되고 있다.
5. 6번 〈무지개다리를 타고 온 소년〉은 《계몽문집 황금펜2004》에 수록된 것으로 현재는 절판되었다. 이 작품은 실제 자료 열람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쪽수를 기재하지 못했다.
  6. 8번 〈새터민 석철이〉는 《편견:세상을 바르게 보는 6가지 따뜻한 시선》에 수록된 단편 작품이다.
  7. 10번 《꽃제비와 똥돼지》는 《꽃제비와 똥돼지》에 수록된 단편 작품이다.
  8. 15번 《넌 네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아니? 북한편》에는 단편 6편이 수록되어 있다. 각 단편의 제목은 생략하였다.
  9. 16번 〈열하일기〉는 《난 아프지 않아》에 수록된 단편 작품이다.
  10. 21번 《옥수수 할아버지》는 탈북민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작품으로, 탈북 아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11. 26~31은 《류명성 통일빵집》에 수록된 단편 작품들이다.
  12. 33-34는 《설마군과 진짜양의 거짓말같은 참말》에 수록되었다. 두 편이 수록되어 있어서 ‘중편’으로 분류하였다.
  13. 40-43은 《감자 오그랑죽》에 수록된 단편 작품들이다.
  14. 48번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생겼어요》에는 탈북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다.
  15. 49번 〈꽃배를 탄 아이〉는 최초 김미애(2013), ‘계몽문집 황금펜’으로 출판되었다.
  16. 53번 《새터민 이야기-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한경아, 2017)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2013)의 개정판이다.
  17. 56번 《리수려, 평양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는 진로를 찾는 청소년 7명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다.
  18. 58번 《리루다네 통일 밥상》은 38번 〈감자 오그랑죽〉과 내용이 비슷하다. 단편 〈감자 오그랑죽〉의 내용을 발전시켜 완성도 높은 장편인 《리루다네 통일 밥상》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19. 위 표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작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를 주인공이 초등학교 아동인 작품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
20. 절판된 작품의 경우 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하였다. 일부는 종이책, 일부는 ‘디지털자료’로 열람할 수 있었다.



## Abstract

Cultural memory is a representative concept of memor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mmunity identity. It is a collective concept of all knowledge that directs actions and experiences in the interactive framework of society, and is acquired through generations through repeated social practice and initiatio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serves as a medium of transferring memories.

This research selects 9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and examines the memories embodied in the works. Researches about children's literature on North Korean defectors have generally been limited to works with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North Korea' as the main characters. Nevertheless this research includes works featuring 'children born in third countries and at least one of their parents is a North Korean defector.' Due to these points, the narrative of a North Korean defector is revealed in their works, and the lives of children with a North Korean defector background have similarities with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s, because those defectors are part of the diaspora.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belongs to diaspora, multicultural literature, and division literature. This is because the central character, a North Korean defector child, is a diaspora who left his hometown. He became a member of a multicultural society settling in a new place, and a witness to a divided society. In additio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realistically expresses the lives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allowing readers to



empathize with those lives who are members of the same community as themselves and move toward true integration.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literature based on North Korean defection are that it is a narrative that reveals how those defector children, who are witnesses of division and the diaspora,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lso, that it adopts a realistic method of expressio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embodies memories of pain, memories of longing, and memories of hope. The memory of pain embodi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ion is related to pain in North Korea, pain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and social othering in the place where one has settled. Memories of longing are related to one's hometown and family. They are summone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spaces and objects, that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encounter in the society they have settl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embodies memories of hope for unification and restoration of identity.

The memories embodi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rough the literature readers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who leave their hometown and live in an unfamiliar society. Second, through it, readers can share memories of hope for unification. Third,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readers' ow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by placing characters who otherize and help them.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embodies memories of pain, memories of longing, and memories of hope. The memory of

pain embodi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ion is related to 'pain in North Korea,' 'pain during the migration process after defecting from North Korea,' and 'social othering in the place where one has settled.' Memories of longing are related to longing for one's hometown and family. Memories of longing are summone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spaces and objects, that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encounter in the society they have settl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embodies memories of hope for unification and restoration of identity.

The memories embodied in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have the following meanings. First,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readers can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who leave their hometown and live in an unfamiliar society. Second, through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readers can share memories of hope for unification. Third,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readers' own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by placing characters who otherize them and characters who help them.

Children's literature about North Korean defectors appeals for understanding and recognition of the existential value of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reflection of South Korean members. North Korean defector children, and a life of harmonious coexistence as members of one community. The continuous production of these kinds of children's literature containing such appeals can play a vital role in changing perceptions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ir children. Also it can form cultural memories of harmonious coexistence. The life of

harmonious coexistence with these children, the literature actually appeals to, is an important value that must be realized for true unification.

I hope that this study on the memory of children's literature based on North Korean defection will lead to expanded interest about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our neighborhood. And I forward my research becoming a mark for a society that achieves true coexistence with them.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related children's literature, North Korean defector fairy tale, North Korean defector fairy tale, cultural memory, literary memory, shaping of memory, social othering, identity recovery

※ This thesis is a master's thesis in education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Committee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February 2024.